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0월 15일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불심모아 청정국토 가꾼다

본사·5개 불교단체 그린스카우트 가입
환경 파수꾼 선언 … 개선활동 지속전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자연의 본성을 살리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일고있다. 환경운동은 곧 인간의 본성을 찾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란 공감대속에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과 함께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펼친다. 그 첫 발걸음으로 지난 10일, 세계최초로 창설된 '그린스카우트'에 가입하고 불교계 환경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본사의 그린스카우트 가입에 이어 불교계에서는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월주)'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 광명시 '청룡사(주지 법운)' 등 5개의 불교단체가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맑은 물 되찾기 운동연합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 운동은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국민모두가 환경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생활속에서 무심코 행해지고있는 환경파괴를 중단하고 감시하는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이다. 이를 위해 가입단체들은 단체별로 환경강연회, 학술제, 예술제, 사진전등을 개최하고 환경감시기구를 조직하여 자체 조사와 토론 모임등을 전개하게 된다.

「현대불교」를 비롯한 불교단체는 이러한 그린스카우트의 운동을 중심으로 불교계 환경파수꾼이 될 것을 서원한 것이다. 본사와 불교단체는 앞으로 사찰, 가정, 직장별로 지켜야할 세부적 환경보호 실천사항등을 공동제정, 불자들의 환경운동 실천덕목으로 제시하게 된다.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 회장은 본지와의 그린스카우트운동 전개에 앞서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고 전제하고 "방송프로가운데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전파를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역시 현재 펼치고 있는 전국불교어린이지도자 강습회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불자어린이의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 단체별로 환경보호사업을 펼쳐 본지와 함께 그린스카우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불교계에는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등의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종단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난해부터 진각종에서 '청정국토 가꾸기운동'을 종단차원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앞으로 불교계의 환경현황과 대책등에 관한 기획을 연재하는등 불교계의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전국규모의 그린스카우트는 12일 정식으로 참단 됐다.

〈이준엽 기자〉



들리는가, 시공을 넘는 비로봉의 설법이 … 솔내음 사이 팔만구암자, 구름 속 기암괴석. 창정검로 돌돌 금강경 읽어 흐르는 저 산 금강물심 하나로 모아 가야 할 정토의 영산에는 자금물 가을빛이 눈부시리라.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오를 수 없는 산, 그러나 가야할 땅. 가서 한마음 밝혀 돌아야 할 비로자나회상의 생생한 설법. 억겁의 풍상이 빚어낸 1만2천 봉우리 계곡마다 앉아있을 불보살들이 통일의 염원과 인류평화의 서원에 찬란한 법공을 수놓아 마침내 피어날 세계 일화. 그 진한 향기는 어둡고 황폐한 중생계에 새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리라. 〈그림 경재 정선(조선중기 화가)의 「금강전도」(국보172호) · 컴퓨터 처리 현대불교전산실〉

총무원장 11월 22일 선출

조계종 「개혁」 마무리 일정 확정

조계종 개혁회의의 마무리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석주)는 지난 12일 제 18차 개혁회의 결과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를 11월 22일 실시키로 하고 중앙·교구종회의원 선거는 11월 7일 치르기로 했다. 조계종은 종회 의원구성이 완료되면 총무원장 선거인단 3백20명을 구성, 새 총무원장을 선출 한다.

한편 개혁회의는 10일 회의에서 중앙종회법 특별분당사찰 지정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12일 선거일자를 공고했다.

창간사

가르침속에 한마음 될때까지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은 늘 공존한다. 과거는 경험 · 반성 · 교훈의 모습으로 오늘에 살아 있고 미래는 예견 · 결의 · 희망의 얼굴로 오늘과 함께 한다.

이것은 철칙이다. 현대불교신문은 바로 그 오늘의 의미를 푸렷이 인식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반문한다. 불교는 케케묵은 어려운 종교인가? 한국불교는 이제 시대의 약방문으로 더 이상 환대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단호하다.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이 낡은 게 아니라 불교인이 구태의연할 뿐이다.

세계는 병원이고 인류는 치료되어야 할 환자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발원 동기이자 깨달음의 골자이다.

그럴진대 어찌 불교가 목어 군내나는 가르침일 수 있으랴. 불교는 영원한 오늘의 약방문이요 생명력이다. 다만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시대의 고뇌를 적극 감싸안지 못함으로써, 또한 현대인에게 알맞는 삶의 모델, 사고의 모델을 올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해와 평가절하를 자초한 것이다. 더욱이 그같은 경향은 안타깝게도 한국 불교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현대 산업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이 끊이터져도 돌아앉아 산중에 은거하는 소극적 자세가 그러하고, 중생구원의 본분사(本分事)보다 기복 신앙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그러하다. 뿐만아니라 되풀이 되는 분쟁 · 송사(訟事) · 정화사태로 배불(排佛)의 기운을 자초하는 행태가 그러하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대개혁의 기풍 진작을 고대하면서 우리들이 할 일로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를 제시한다.

불교의 현대화란 교리의 재해석이나 개작(改作)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대인이면 누구나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요, 가르침을 따라 살아도 거북살스럽지 않게 납득시키는 일이요, 가르침을 맛 볼 수록 삶이 넉넉해지게 이끄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화는 붓다의 정신으로 되돌아감인 동시에 가르침의 참뜻에 오늘이라는 옷을 입히는 노력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사회 병리 현상, 인간소외의 문제, 생태계 파괴 등의 과제도 현대화의 각론으로 삼아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불교의 생활화 역시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그냥 일상 생활 가운데 불법을 실천하고, 사회가 바로 가르침의 실천 도량이 되게 하자는, 다시말해 가르침이 곧 생활도리요, 생활도리가 곧 가르침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힘 닿는 대로 실참 수행을 북돋우려 한다. 그것은 선도(先導)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실참 수행이기도 하다.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온 겨레가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한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다방면으로 계속할 각오이다. 우리가 이일에 정진, 또 정진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불교가 현대 과학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동감 넘치는 가르침으로 온 인류를 감싸안게 되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현대불교는 언제나 거짓없는 목탁소리를 낼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특정 사찰 · 특정 종파의 대변지이기를 거부하고 다만 붓다의 기관지임을 고집할 것이며, 따라서 과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만이 우리를 잡아줄 뿐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의 자세를 지켜 나갈 것이다.

창간특집 24면 발행

국내외 축하메시지 2면
축시 '여기 독수리봉 바람소리' 3면
29대 불심 박상일거사 7면
한국의 불교지도 8·9면
갈을 묻는 이에게 10면
신라성인 김지장 열반현장 12면
특집 I 생활속에 피어나라 연꽃처럼
불자 108명에게 들어본 오계 4면
97세 보현행자 문성 큰스님 5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6면
특집 II 한국불교 제자리 찾을때다
주제대담 불교는 21세기의 희망 17면
좌담 한국불교의현재와미래 18면
한국불교 어디에 서있나
불자교수 1백인의 대답 20면
한국불교 거듭나기 21제 21면
2020년 가상현장
꽁트, 타임머신 보고서 23면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현대불교신문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배전 변압기(유입, SF_6 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배전반, 용접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 산업용 기기및 설비 : 린트 압축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삭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차설비 •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써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고품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 건설 : 효성빌라, 주택신설, 각종 건축 공사
FA기기 산업용기기 전선 회전기기 중전기기 전력전자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시대부응 기대…무궁한 발전 바라

—— 국내외 인사 「현대불교」 창간에 축하 메시지

종정 축사



월하 〈조계종 종정〉

日月曲穴不施光
淸風井低不揚波

대저, 부처님의 말씀도 경서에 묻혀 있으면 빛을 발할 수 없고 옛 조사들의 가르침도 서적에 갇혀 있으면 쓸모가 없나니 꾸준히 참구하고 뜻을 밝혀 만인의 마음 문을 여는 일이 값진 불사라 할 것이다. 일월(日月) 같은 현대불교신문이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들의 빛나는 마음을 굽은 동굴, 우물밑까지도 널리 펴려 함이니 앞길에 거칠것 없고 백련홍련 만발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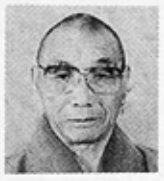
보성 〈태고종 종정〉

화엄경에 보면 '어둠속에 들어있는 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하루빨리 물질우선과 금전만능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어두운 그늘을 밝혀 인간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불교」는 오늘의 인간과 세계에 드리워지고 있는 이 어두운 그늘을 밝혀내는 등불의 역할을 해 달라.



각해 〈진각종 총인〉

법계의 총만하신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귀명하오며,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는 단지 불교만을 위한 불교의 홍보지가 되기 보다는, 일체중생을 위해 이 세상을 아름다운 극락정토로 가꾸어 나가는데 힘쓰는 불법의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암 〈법화종 종정〉

부처님법은 제세의 근본이고, 자비는 처세의 근본이며, 화합은 치사의 근본이며, 근면은 치가의 근본이며, 충언은 인사의 근본이고,성실한 행동은 성공의 근본이다. 「현대불교」는 이러한 뜻을 잘 간직 불자들의 눈과 귀를 이끌어달라.



대천 〈관음종 종정〉

모든 시청각의 범람시대에 청량수가 되고 자비의 손길이 될 수 있고 고통받고 괴로운 이에게 천수천안이 되도록 창간하는 뜻을 그대로 계속 지속시켜 줄것을 당부하며 창간을 축하한다.



경조 〈불입종 종정〉

「현대불교」가 언론의 사명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것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현대불교가 불교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



록정 〈불교총지종 종령〉

빠른 정보와 정확한 기사를 토대로 각 종단, 종파간의 정보교환의 매개체 역할과 불법전파의 선두역할을 해주기 바라며 창간하는 「현대불교」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 함께 하시며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한다.



금암 〈법륜종 종정〉

언론은 형체없는 화살이라 척사현정의 전위가 되어 명실상부한 예도로서 혼탁한 교계의 면모를 해부하고 현묘한 침봉으로 부실한 맥을 살려서 앞으로는 또다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정자의 역할을 다해 줄것을 당부드린다.



운파 〈조동종 종정〉

허공계는 내외가 없듯이 미망의 집착에서 해탈한 심법 또한 이와 같음이니 이 진리를 요달한 자 함생불멸의 진아를 찾은 각자라 하겠습니다. 신문은 부처님께서 깨친 진리를 전해주는 법보로서 문서포교지로서 사명을 띠고 있는 바 「현대불교」가 암야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김 수 환

김수환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나라 안팎의 빠른 변화 속에서 개인은 물론 민족 공동체가 걸어야 할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배금사상과 물질만능 풍조가 만연해 있고 인명경시의 풍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음을 믿기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 창간하는 「현대불교」가 바로 생활 속의 길잡이로서 현대사회를 밝히는 빛으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강 원 룡

강원룡〈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불교는 항상 열린자세로 종교간의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열린 지구촌에서 종교다원주의시대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창간되는 「현대불교」는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가서는 전체민족이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전 팔 근

전팔근〈전 원광대 부총장〉 = 모든 대중의 밝은 눈이 되고 투철한 귀가 되며 올바른 입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현대불교가 불심을 바탕으로 교화 및 구도매체로서의 거시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갈때 창간의 면목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병천〈동국대학교 총장〉 =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불교」가 이름 그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불교가 무엇이며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고도 알기 쉽게 가르쳐줄 것으로 믿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 병 천

신경림〈시인〉 =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도와 일반대중에게 알리는데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불교를 케케묵은 낡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끔 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많은 불교의 고전들을 일반대중이 고루 읽도록 하는 일에도 「현대불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공 종 원



신 경 림

남지심〈소설가〉 = 사람들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가치관의 기준까지도 거기서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때 불교계를 대변해 줄 「현대불교」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신문을 창간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대불교」가 불자로서의 긍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 섭

이민섭〈문체부장관〉 「현대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참자유·참생명이 가득한 세계를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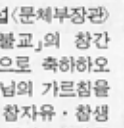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라는 사시처럼 일상생활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행과 불교교리의 현대화, 그리고 세계적 포교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전 사부대중의 사랑받는 불교전문지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 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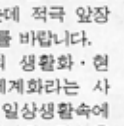
김태호〈불교방송 사장〉 =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직필정론의 대중포교지가 될 현대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교계신문도 선의의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질높은 내용으로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천만 불자들의 가슴에 영원토록 간직될 부처님의 감로법문을 지면과 방송을 통하여 걸림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불교방송과 현대불교가 함께 노력하길 바라며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 흑종은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뒤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쉽게 발행을 중단하고 마는 그런 매체가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지만 「현대불교」의 경우는 처음부터 단단한 각오와 준비를 가지고 창간된다고 듣고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사랑받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포교에도 크게 공헌하는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 돈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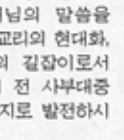
서돈각〈진흥원이사장〉 = 「현대불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에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알찬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불교계도 여러 방면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내외적인 모든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해야만 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보존,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현대불교」의 창간은 모든 불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보다 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대불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불교사에 남는가 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불자의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권 익 현

권익현〈국회정각회장〉 = 국민들이 갈망하는 법을 들려주는 신문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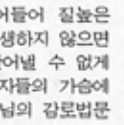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는 최근의 몇몇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금전만능과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으뜸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불교에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허 경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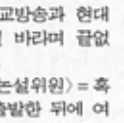
허경만〈민주불교신도회 회장〉 = 큰 포부를 갖고 희망차게 출발하는 「현대불교」의 장도를 기원하며 창간을 축하합니다.

불자들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라며 공정한 정론지 및 생활불교지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곽 정 출

곽정출〈민자불교신도회장〉 =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론지로서 불자들과 함께하고 불교를 알고자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갖게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서 석 재

서석재〈국회정각회 고문〉 = 특정한 계층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해 중생의 언어로 가르침을 설하신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번에 창간되는 「현대불교」가 계승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생의 언어로 중생의 아픔을 구제해 주는 신문, 사회의 도덕성회복, 민주복지사회 건설, 나아가 통일에 이바지하는 불교개혁의 조타수가 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태 용

태용스님〈불교TV 대표이사〉 = 내년 3월 1일 개국되는 불교텔리비전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에도 공동보조를 취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 치유에 적극 앞장서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하지 않음으로써 명실공히 맑고 향기로운 불국정토가 이땅에 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 탄

월탄스님〈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 「현대불교」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불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현대불교」는 참 가치관과 보시정신을 가지고 인간성회복과 불심계발에 최우선을 두는 교화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혜 총

혜총스님〈석림동문회장〉 = 이제 고고의 소성을 발하는 「현대불교」여! 쓰여지는 글귀마다 중생을 이익케하고 읽혀지는 구절마다 불심을 증장케하여 반목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심어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자비를 일게하여 부처님께서 본래 유훈하신 「세계일화」를 이루게 하소서.

시작은 항상 성스러운 것이며 장구한 유지는 더욱 보배롭고, 여법한 회향은 불가의 근본일진대 불교의 언론도 이와 같아서 시작보다 유지를 중시하고 또한 뜻깊은 회향에 여력을 경주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송 산

송산스님〈중앙승가대학장〉 = 「현대불교」는 불교신문으로서 정도에서 이탈되어서는 안되고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기사의 게재라든가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의 게재로 불교의 청순함을 잃어버리고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교계언론을 이끌어온 경영진과 편집진·보도진이 총 망라돼 만들어지는 현대불교가 포교지로서 소식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언론매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효 림

효림스님〈불교신문사 사장〉 = 현대불교가 언론의 대업에 동참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말씀에 따르는 바른 언론을 항해 힘차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강남석〈군승단 단장〉 = 불자장병 20여만명과 함께 「현대불교」의 힘차고 당당한 정론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해외

달라이라마〈티벳 승왕〉 = 본인은 한반도에서 불교문화가 창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현대불교」가 창간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티벳과 한국의 문화는 모두 수세기에 걸쳐 부처님의 가르침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처음 가르침을 펼친 이래 2천5백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분의 법은 세계평화와 개인의 행복에 깊이 공헌한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현대불교」의 편집자와 독자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며 더욱 깨어있으므로써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달라이라마



산아 다르마

산아 다르마시크티〈세계불교도 연합회장〉 = 본인은 신행의 길잡이 및 포교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현대불교」가 10월 15일 창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법을 전파하는 것은 곧 대중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이루며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대불교」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잠 룡

잠룡〈전 태국 방콕시장〉 = 「현대불교」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통하여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21세기의 비전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대사

탄원대사 「현대불교」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檜本澈

에티폴라 나이카 테로〈스리랑카 대승정〉 = 스리랑카의 모든 불자들을 대표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불법을 전파하고자 창간되는 「현대불교」에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본인은 한국 불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알루비하라야 사원을 대신하여 「현대불교」가 세계적으로 불법과 광화를 전파하는 대업에 동참함에 축복과 지지를 보냅니다.

로버트 버스웰〈UCLA 교수〉 = 한국사회와 불교전통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혁신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대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은 「현대불교」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라며 이 신문이 한국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石原大道〈일본 대법륜각 대표〉 = 훌륭한 이념을 내걸고 신문을 창간하는 것은 저희 회사의 이념과도 상통하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사는 반드시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귀신문의 발전을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황심천〈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소〉 = 「현대불교」가 한중 양국 국민들의 우의 증진과 학술문화교류의 새로운 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선업공덕을 드날리고 넓은 지혜와 깊은 지식을 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주한 미얀마 대사〉 = 본인은 새롭게 창간되는 「현대불교」가 한국불교 신도들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축하합니다.

---

* 이외에도 버클리대학 루이 랭카스터 교수, 일본 「불교타임스」 대표 檜本澈, 인도 한국불자회 현동화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꿈의 컴퓨터 - 파워 매킨토시

현존하는 어떤 PC보다 빠른 컴퓨터 -
매킨토시부터 DOS,Windows 등
모든 PC의 사용환경을 지원하는 컴퓨터 -
미래에 필요한 첨단기능이 모두
기본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
진정한 멀티미디어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바로,꿈에 그리던 컴퓨터입니다.

일반PC의 한계를 깨뜨린 64비트
멀티미디어PC-파워 매킨토시.
새로운 PC시대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파워 PC 칩이란?

파워 PC 칩은 애플 IBM 모토롤라가 공동개발한 RISC 방식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의 뛰어난 처리속도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파워 PC 칩은 기존의 486 과 같은 CISC 칩에 비해 월등한 처리속도와 지속적인 성능향상을 보장하는 차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입니다.

IBM MOTOROLA

* IBM, 모토롤라, PowerPC, 맨티엄, DOS, Windows, 훈글, Lotus, 캡 신생은 각사의 공식등록 상표임.

■ 엘렉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파워 매킨토시 안내 책자를 드립니다.

파워속도 최고 10배 이상의 놀라운 처리속도,풍부한 용량

■ 486PC에 비해 5~7배,펜티엄보다 3배 이상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처리속도에서 가장 앞선 파워 매킨토시-
PC의 일반기능인 워드 프로세서,스프레드 쉬트, 통신 등에서의 뛰어난 성능은 물론 그래픽,이미지 프로세싱,CAD 등 전문분야에서는 최고 10배 이상의 빠른 처리속도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 진정한 64비트 멀티미디어 PC
64비트 RISC구조의 파워PC 칩과 일반PC의 2배인 8MB의 대용량 메모리를 채택한 파워 매킨토시 -
복잡한 그래픽,동화상,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486DX 를 1.0 기준했을때 파워 매킨토시와 펜티엄 PC 속의 성능 비교 (글상록 고문제공) (자료 미국 인디애나대학)

파워사용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 일반 DOS용 한글까지 활용

■ 3세 아기부터 80세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
어렵고 복잡한 영어로 된 명령어를 배울 필요가 없이 TV처럼 켜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매킨토시 -
하루만 배우면 컴퓨터의 일반기능부터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집 컴퓨터입니다.

■ 매킨토시 OS,DOS,Windows를 함께 사용
뛰어난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사용,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며, 훈글, Lotus, 캡션생 등의 DOS용 프로그램까지 사용가능한 파워 매킨토시 -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아빠, 학교에서 DOS 명령어를 배운 아들, 그럼그리기가 취미인 엄마까지 우리가족 모두를 만족시키는 컴퓨터입니다.



●훈글 등 DOS 용 프로그램 사용가능

●업그레이드된 한글 클라리스웍스 2.0 기본제공

●디스켓비, 멀티비, 비디오레코더, 도서관비, 음악비 장비, ClipArt, Fax 장비, Letter Merge, 논문생활, 명함출력부, 장학관리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본제공

파워기능 파워 매킨토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멀티미디어기능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 연결 가능

●캠코더 CD - ROM 드라이브

●외부 모니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개 모니터 기능

●비디오, AUDIO, 스피커폰의 멀티기능 기본제공

■ 영상자료의 입력은 물론 출력까지
캠코더와 VTR을 활용, 가정에서 영상 전자앨범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화면을 비디오 테입으로 녹화
컴퓨터 작업 내용을 비디오 테입으로 저장하여 기업, 학교, 관공서등의 회의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종의 다양한 CD사용이 가능한 CD - ROM탑재
매킨토시 및 일반 PC용 CD, 영상반주 CD, 오디오 CD, Photo CD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16비트 스테레오사운드로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 두 대의 모니터를 동시 연결(Dual Monitor)
비디오 를 보면서 게임, 문서작성, 계산, 그래픽, CAD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전용 AV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헤드폰 연결단자, 음량조절, 녹음버튼이 전면에 부착된 멀티미디어용 오디오비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서비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뛰어난 서비스



● 1700여종의 프로그램과 300여종의 게임이 들어있는 CD2000 Ⅱ, 국기, 로고, 특수 문자등 2000여종의 그림 자료가 포함된 데이타 뱅크, 노래방 CD 등 활용도가 최고인 4종의 CD 무상제공 (CD 모델 이상)

●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 매킨토시를 파워 매킨토시로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나사와 Dip스위치가 없어 고장이 극히 적고 누구나 쉽게 설치 및 사용가능

파워가격 파격적인 가격 198만원 부터



6100/60
60Mhz 파워PC 601 마이크로프로세서
8MB RAM(최대확장 72MB) 250MB HDD
소프트 윈도우 기본제공 EtherNet

6100/60 CD
60Mhz 파워PC 601 마이크로프로세서
8MB RAM(최대확장 72MB) 250MB HDD
애플 CD-300i 플레이어 내장 EtherNet

* 상기 가격은 모니터, 부가세 별도 금액임.

엘렉스컴퓨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7
TEL : 709-8000(대표) FAX : 709-8451~3
주식회사 코매트시스템 DTP,A/S전문센터 TEL 715)266-8127

■ 엘렉스센터(전시/판매점)
• 서울
용산점 704-1707 신촌점 701-6344 종로점 723-9567 신림점 883-8293 구로점 857-8357 중구점 273-6960 노원점 825-8471 목동점 653-2187 신사점 546-5525 시당점 525-3100 삼성점 566-9333 예촌점 747-0180 정실점 424-8307 분당산운프라자 717-4088 압구정점 549-0349 청량리점 959-3414 강서점 698-0891 성동점 299-3393 중곡점 457-8395 송파점 263-0055 여의도점 782-4384 신사점 546-5525 시당점 525-3100 삼성점 566-9333 예촌점 747-0180 홍대점 335-0451 대치점 558-5727 건대점 499-1970 • 인천 인천점 (032) 873-0471 • 부평 부평점 (032) 524-7557 • 수원 수원점 (031) 215-8077 • 성남 성남점 (0342) 756-6670 • 안양 안양점 (0343) 22-7079 • 청주 청주점 (0411) 556-2366 • 원주 원주점 (0371) 731-8151 • 대전 중앙점 (042) 532-4905 • 대전 소점점 (042) 257-4545 • 춘주 춘주점 (0441) 847-3895 • 춘천 춘천점 (0361) 241-2000 • 원주 원주점 (0371) 731-8151 • 김룡 김룡점 (0391) 647-9513 • 대구 중앙점 (053) 421-5150 • 대구 중로점 (053) 256-1383 • 논찬 포항점 (0562) 83-1277 • 대구 동부점 (053) 424-8111 • 전주 전주점 (0652) 251-4111 • 군산 군산점 (0654) 446-5544 • 광주 중앙점 (062) 223-9911 • 여목 여천점 (0653) 658-1386 • 목포 목포점 (0631) 44-4044 • 순천 순천점 (0661) 722-1655 • 원동 원동점 (0551) 84-1815 • 울산 울산점 (0522) 73-1122 • 부산 부산대점 (051) 516-3493 • 부산 동부산점 (051) 555-3546 • 부산 중앙점 (051) 468-0096 • 부산 서면점 (051) 804-6811 • 부산 동아점 (051) 552-5831 • 제주 제주점 (064) 21-4545 ■ 전문대리점 • 서울 한스테크(압구정동) 545-8590 • 태평시스템(논현동) 511-0440 • 컴버스시스템(신사동) 512-2560 • 임로스컴퓨터(중무로) 263-0055 • 대화컴퓨터(전자랜드) 704-1707 • 우진데이타시스템(신촌) 701-1117 • 휴일시스템(여의도) 782-1896 • 골든시스템(중무로) 269-6037 • 덕우시스템(중무로) 269-0543 • 백화무스(역삼동) 563-5590 • 이레스컴퓨터(여의도) 786-0090 • 코레트시스템(인천동) 266-8127 • 유빅컴퓨터(반포동) 596-0561 • 세일포트(이지동) 277-6023 • 한빛 중무로 273-6962 • 엘더데이타시스템(서초동) 521-5633 • 한국정보서비스(상산동) 561-8141 • 아성전자(역삼) 703-1114 • 공인당(마포) 716-6883 • 한국커뮤니케이션(역삼동) 566-0803 • 기종시스템즈(일동) 263-6708 • 대우시스템즈(일동) 634-9438 • 에이데이 중무로 263-6485 • 제이텍 그래픽스(일동) 273-5141 • 제너시스 컴퓨터(일산동) 631-9248 • 인천 도두시스템(도화동) (032) 874-6060 • 수원 대원시스템 고등 (0331) 42-9454 • 천일 한나컴퓨터 신부동 (0417)554-7373 • 대전 성동컴퓨터(정동) (042) 221-3131 • 대구 대구중심동 구 중앙극장 (053)421-5626 • 대구 대구컴퓨터센터 금호빌딩 (053) 256-1383 • 광주 청산컴퓨터(남동) (062) 223-9911 • 원동 원동컴퓨터스 (중앙동) 0557) 84-1866 • 부산 맥스컴퓨터 중앙동 (051) 464-7052 ■ 컴퓨터플랫폰점 브라더컴퓨터 서초동 1558-4345 ■ 파워북전문점 • 용산전자타운점 703-4206 ■ 백화점 전시판매장 롯데 본점, 영등포점, 잠실점 (롯데리점) 미도파 본점, 상계점, 청량리점) 신세계 본점, 영등포점, 미아리점, 천호점) 현대 본점, 무역센터점) 삼풍 그랜드 뉴코아 본점, 과천점) 한신코아 부산 영업점(신천동) (051) 464-4345 광주 영업소(학강동) (062) 364-0280 ■ SI 업체 삼성데이타시스템 (마곡동) 360-6143 한라공업시스템(여의도동) 787-6515 동양 SHL(을지로) 754-0854 신라정보시스템(대치동) 563-8091 삼미전산(잠실동) 790-6505 • 논 A/S 전문 지정점

창간기념축시

이 첫울음 소리만큼 비벼대 어여뿔수 있으리

여기 독수리봉 바람소리

옛 마가다나라 서울 라자그리하
그곳에서 어슬렁 무소 한 마리 따라
이어서 물랑 조랑말 한 마리 따라
땀범벅으로 올라갔다
빔비사라왕이 수레 버리고
허위허위 오른 그 길
부처님 뵙기 위하여
오르고 오른 그 길
그리하여 빔비사라의 길 백팔계단을 올라
비바람막이 가섭굴 아란굴 돌아
훌렁 모자 벗겨 날아가며
여기 독수리봉 꼭대기 향실이라
성도 이후
으뜸으로 무로녹은 법 펼치신 향실이라
엉켜워 키다리선인장
얼키설키 가시나무
온갖 관목들 어우러져
바위덩어리
바위너설 사나운 곳
그러나 가장 척박한 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곳
독수리봉 꼭대기 향실이라
차라리 버러촛불 밝히면
휘익 꺼버리는 향실이라

여기 올라 들어보았는가
귀 가다듬어
2천5백년 전의 바람소리 들어보았는가
아니 2천5백년 뒤
오늘의 바람소리 옷 빚어 들어보았는가
이 세찬 바람 속
부처님 여든살의 목소리
소리 없는 소리 들어보았는가
귀 없는 귀로
눈 없는 눈으로
마음 없는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자욱하게 맘아들였는가
석가나 아미라나 뭣이나
일체중생과 어우러져
여기 함빡 놀라 정토 이룸이여
어찌 이룸인가
일찌기 부다가야 새벽의 기쁨 가슴에 품고
그 기쁨은 언제나
일체중생의 슬픔이었고
일체중생의 기쁨이 내 슬픔 아니었던가
여기 독수리봉 바람소리
몇천년의 바람소리
그 가운데 서서
저 아래 왕사성을 내려다 보거니와
지난날 큰 성문 32개
작은 성문 64개
여러나라 사람과 짐승이 드나드는
그 장엄한 시대를 내려다 보거니와
저쪽으로는 가야
저쪽으로는 차시
첫 설법의 녹야원
반야부 설법의 기원정사
저쪽으로는 코살라
저쪽으로는
저쪽으로는 설산 다울라기리
어린 싯다르타가
항상 꿈꾸던 진리의 설산
고향 가비라에서
하늘가 아득히 솟아오른 설산 다울라기리
그런가 하면 40년 세월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이 고장 저 고장
이 강 저 강 건너 떠돌며
그때 스스로 부처이므로
나 혼자 부처 아님을 간절히 가르쳐온 바
수많은 숲과 도시와 두메를 내려다 보거니와

다섯사람의 수행자가
어느덧 1만2천의 출가제자로 불어나
여기 독수리봉을
새떼처럼 뒤덮었으며
또한 유식꾼 무식꾼 2천과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그녀의 권속 6천과 더불어
벌나비떼처럼 뒤덮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 야쇼다라 비구니께서도
그녀의 권속을 데리고
하늘 속 드높이 떨쳐오르는
그 바람소리 듣고 있었거니와
보살마하살 8만이 다라니 경지 이루었으며
또한 하늘 속 인드라천도
그의 권속 2만과
4천왕 권속 1만과
자재천 대자재천 권속 3만과
사바세계를 거느리는 1만2천과
물 속의 용들 몇백 몇천도
아니 어느 권속도
어느 권속도
라자그리하 왕도 와 있으며
출가 재가 4부중 대회상
여기 영산회상을 이루었으니
장엄하도다
장엄하도다
하늘이 만다라꽃 만수라꽃 꽃비 내리고
부처님 눈썹 사이
눈부신 빛 놓아
동서남북 1만8천세계
그 아래 아비지옥
그 위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
6도중생 일체중생을 다 비추이니
여기가 보살의 길 열리는 곳 아닌가

오늘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
여기 동아시아 한반도 복판에 이르러
2천5백년전의 바람소리
2천5백년뒤의 바람소리로 이어져
이 바람소리 세차
마치 그때와 한때이듯
이 바람소리 세차서
마치 그곳과 한 곳이듯
여기 동아시아 한반도에 이르러
오늘의 불교 거듭거듭 태어나
현대불교의 아기로 태어나
그 진리의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로 태어나
이 세상 어느 곳인들
이 첫 울음소리만큼
비벼대 어여뿔 수 있으리
이 첫 울음소리만큼
응애응애
숙연할 수 있으리
그저 한갓 울음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골추 펼 울음소리요
자비를 널리 펼 울음소리요
더 없는 지혜 펼 울음소리요
발원하건대 발원하건대
여기 영원한 생명실상과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동글게 돌아서
비로소 한 사람을 이룸과 같이
한 소식을 이루어
현대불교 이 이룸이니
이 이름 불러들여
이 이름 품고 가자하건대
문득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여
물계구름 바삐 흩어지고
일체망상이 사라짐이여
주인공아
그대 뱃속의 씨 찾아내 보여라
여기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
저 아래 동서남북
우뚝우뚝 자라나는 풀과 나무마다
진리의 꽃 피워보아라
그리하여 하늘에 꽃비
땅에 꽃덤불이라
오늘 새로 피어나는 꽃
오늘의 불교
현대불교 펼쳐 보아라
저 2천5백여년전의 길
빔비사라의 길 내려오며
진리란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까지
과도쳐 넘치지 않고
과도쳐 줄지 않음이니
여기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
그 소리 소리 소리로
그 진리의 소리로 큰 서원
큰 행실의 한마음 살림이니
이 아장아장 걸음마
자란 아기
이어 출무성한 처녀총각
시퍼런 젊음
그리하여 경륜
정정한 노장의 소나무로
백년 천년의 법 수레 구울림이니
보소라 보소라
활짝 펴져 열린 큰 길 양양하여라
다시 한번 울리셔서
여기 바람소리
귀 가다듬어 들어 보아라
함께 나아갈 길
바람과 함께
그대와 나의 신심과 함께
끝간데 모르도록 나아갈 길 양양하여라

축화 최규일



생활속의 불교 ①

천대불교신문

"억만장자가 끼니를 걱정한다?"

지구상에 있는
온갖 진귀한 보배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무한히 값진 보배가
우리들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만물의 영장답게 위대한 지혜의 힘,
빛나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늘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듯이,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듯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나의 근원으로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부처님 성품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는 고통과 갈등이 따르는 것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다면 비록 억만장자일지라도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하는 거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을 일컬어 부처님 성품이라고 한다.
이름하여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주인공은
우리 모두의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이름, 다른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능력면에서는 한 치의 차별도 없이 똑같다.



나의 근원을 밝히는 길,
그것이 길
. . . .
불법공부이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주)현대불교신문사

'맑은 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날 수도꼭지에서
시뻘건 녹물 · 흙탕물이 쏟아지는 걸 보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송수관이 녹슬거나 망가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원PE 파이프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 공급엔 동원PE 파이프가 적격입니다.

동원PE 파이프의 특성

위생성
무독 · 무취하므로 물맛의 변질이 절대로 없어 식수 · 온천수 배관에 최적이다.

내식성
부식 · 전식이 전혀 없어 관석이 생기지 않고 녹물의 염려가 없다. 바닷물 배관에도 적격이다.

내약품성
산 · 알칼리 · 염분에도 침식되지 않으며 해조류나 박테리아 등 세균류가 번식하지 못한다. 솔벤트 등에도 매우 강하다.

경제성
자재비가 저렴하고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이며 시공이 간편해 다른 자재보다 매우 경제적이다.

내한성
영하 80℃까지 물성변화가 없어 혹한기라도 동파의 염려가 전혀 없다.

유연성
신도가 500% 이상이므로 매설 후 지반변동이 심해도 파열 · 균열현상이 없고 따로 엘보 이음관을 쓸 필요가 없다.

기타
관 내면이 매끄러워 흐름이 좋고 융착이 완벽해 절단 이전 상태와 같은 이음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찰손실, 누수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동원PE 파이프의 용도

송배수관/급수관/소화전/LNG · LPG 등 가스배관/지중선 보호관/
옥내 전선배관/해수인입배출관/농업용수관/간석지 배관/스프링쿨러 용/
골프장 송수관/유류 · 화학약품 송수관/갱내 공기송출 닥트/
토사 등 수송관/기타

폴리에틸렌 파이프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DONGWON (株)東原프라스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0-1 서당 빌딩
TEL. (02) 588-3476/8-4546/7 FAX (02) 588-9470
공장 전북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 391-1
TEL. (0653) 858-8335/6 FAX. (0653) 858-8337

창간특집 I 생활속에 피어나라 연꽃처럼

오계 불자 108명에게 들어보니…

"사회가 바로 오계 실천장 돼야"

세상이 날로 황폐해 지고 있다. 늘어나는 범죄는 잔인해 지고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두꺼워져 어느때 보다도 계율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본지는 우리 삶의 기본윤리인 오계를 불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108인에게 들어보았다. 그 대답을 본지에〈일기쉬운 불교〉를 연재할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분석했다.

<설문 내용>

1. 당신은 오계를 받았습니까? (받았다 71%)
2. 오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계입니까? (죽이지 말라 58%)
3.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계는 어느 것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46%)
4.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쉬운 계는 어느 것입니까? (훔치지 말라 33%)
5. 당신은 왜 오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불자된의무 23%)
6. 낙태는 불살생계를 파하는 것일까요? (그렇다 70%)
7. 오계를 못지키는 것은 자의적인가 아니면 타의적일 때가 많은가? (자의적이다 57%)
8. 오계 가운데 타인에게 권하고 싶은 계가 있다면? (거짓말 하지 말라 50%)
9. 오계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의향은 있습니까? (확산시키겠다 94%)
10. 실생활에서 오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100점 만점) (평균 60점)



목 정 배 <동국대 교수>
- 1937년 경남 사천 출생
-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 졸업
- 동국대 교수,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사)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
- 저서 :〈삼국시대의 불교〉〈불교사 입문〉〈승민경〉 등 다수

다른 나라 오계

오계는 부처님 당시부터 중히 여겨온 계율이다.오늘날에는 재가신자의 기본계율로 각 나라에서 수지하고있다. 인도의 경우 오계는 불교뿐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등에 관차실라(Pancasila)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오계가 종교를 초월하여 국민의 생활지침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등의 남방불교국가에서는 오계가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오계가 생활과 일치되어 기본도덕규범으로 여겨진다.

태국의 경우 '마이 펜 라이'(Mai Pen Rai)라는 말을 자주 쓴다. '천만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오계가 생활화 되어 있어 정신속에 언제나 '마이펜 라이'가 살아있는 것이다. 행여 주문한 음식속에 벌레가 들어 있어도 '마이 펜 라이,' 지나가는 사람이 부딛쳐도 마이펜 라이를 연발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미덕은 오계가 종교적 덕목에서 사회윤리적 강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생활속에 살아있는 계목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티벳불교에서는 밀교교리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 여기에서는 수행이 곧 오계의 계율 역할을 하고 있어 오계의 실천이 적극적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 대만, 일본등의 대승불교권 국가에서는 오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다소 뒤떨어져 있다는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오계의 수지 및 실천이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편이다.

오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계식을 통해 불명과 함께 계를 받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계식에서 연비를 통해 계를 받는다.

'세계의 곳곳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현상,또는 일어날 조짐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오계를 수지,실천하는 길뿐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계는 인류의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교초월한 생활규범 남방불교국 적극실천

인간의 마음이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천인공노할 엽기적 사건들이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음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아녀자들은 길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 지존파, 온보현등 일련의 살상 사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행은 받들어 행하여야 하고 일체의 악행은 절대로 짓지 않게 하였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고 하였다. 자정능력이 쉴새없이 활동하여야 한다. 마음은 자정력이 있을때 마음이라 한다. 자정능력이 탈진하면 무분별한 악행이 만연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맑아야하고, 싱그러워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찰나찰나 상념의 번뇌가 일어날 때 가차없이 단멸하는 자정력이 발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 증오가 조건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살다보면 언쟁, 논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여 싸움질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존파나 온보현은 이런한 일차적인 시비의 덫을 거치지 않고 마구 살행하는 악마심이 준동하였다니 … 사람은 최소한의 사람되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사람되기를 포기하면 인비인인 것이다.

하나, 당신은 오계를 받았습니까의 질문에 108명 중 71%가 오계수지로 나타났다. 불교인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질문을 하였기에 108명중 77명은 수계자이고, 31명은 미수계로 판명되었다. 사찰에는 비불자의 출입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출입자는 불교인이고 수계자가 71%라는사실은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둘, 오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불살생이 63명이다. 58%를 차지 하였다. 이것은 인명경시의 사건이 일어났던 추석 이후에 설문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보다 밤생법회의 행사가 살생의 죄악을 체험하게도 하였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생의 자부라는 말이 깊은 뜻을 내포하였을 것이다. 태·난·습·화의 모든 생명이 하나라고 강조하는 불교교설이 모든 불자들에게 생명을 아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양되었으리라 본다.

셋,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한 대답으로 불망어계가 46%나 되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신용이 앞서야 한다. 사회구조가 신의의 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신용이나 믿음이 결여되면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생활속에 야기되는 거짓말, 속임수, 사기등이 사람이 사는 관계를 어둡게 한다. 불교인이 수계한 다음에도 망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하여도 되돌려 참회하고 정직한 언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 오계 가운데 실천하기 쉬운것에 대한 답은 불투도였다. '훔치지 말라' 이것이 33%로서 비교적 양심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듯하다. 무소유 무아집 무집착의 공부가 잘되면 남의 물건에 대하여 별다른 애착이 없어진다. 극미한 물건에 대해서 부러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유욕이 생기지 아니한다. 최소한의 소유심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불교인은 자급자족 자수용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이다.

다섯, 당신은 왜 오계를 지켜야 하는가의 단답식 질문에서 여러형태로 답을 해주고 있다. 즉 부처님께 귀의했기 때문에 13%, 정직하게 살기위해 4%, 대승적 보살행을 위해 14%, 제일 많은것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무 23%였다. 불교인의 사고 속에 내재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가 바로 오계를 수지하는 것으로 관명된것은 타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짓말 말라"가장 지키기 어려워
나의 5계 실천점수 평균 "60점"

여섯, 낙태는 불살생계를 파하는가의 질문에 가장 많은 긍정의 대답이 나왔다. 긍정 76명, 아니요 27명, 상황에 따라 3명, 무응답 2명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다. 지금 낙태 임신 중절이 법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비하여 불교인은 낙태문제에 대하여 과감히 불살생계를 파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것은 생명외경, 생명존엄의 확고한 관념을 확립하였다고 본다.

일곱, 오계를 못지키는 것에 대하여 자의적이라는 대답을 57%로 주었다. 사실 타의적 강권에 의하여 지율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언제나 자정능력을 스스로 지키는 자의적 계율관이 중요한 것이다.

여덟, 오계를 권장한다면 불망어를 준수케 하려는 뜻이 50%나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신용사회, 믿음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뜻이 품겨져 있어 다행한 것이다.

아홉, 오계는 사회적 실천덕목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94%나 되었다.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오계의 사회성이 밝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앙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열, 끝으로 오계 실천에 대하여 평균 60점이 나왔다. 이것은 중품적 청정사회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품청정극락이 되게하기 위하여 계율의 자율성이 뭇 선행을 실천하는 길임을 자각하여야 한다.윤리와 도덕이 매몰된 사회는 암굴마가 악마의 탈을 쓰고 너와 나를 바로 도륙시키려고 칼 도끼를 휘두르는 사회다. 우리는 오계수행으로 청정세계를 만드는 맑고 싱그러운 마음의 불자가 되어야 한다.




FM101.9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FM 101.9MHz
BBS 불교방송에 귀기울이면
더불어 살아가는 멋을 느낄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불교방송은
이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편안한 사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부처님의 작은 등불 하나라도
너와 내가 소중히 밝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갈등도 괴로움도
모두 사라지고 자비의 법음(法音)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 갑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705-5111~4

창간
현대불교신문

작가 정찬주가 만난 97세 보현 행자

문성 큰스님

창간특집 | 생활속에 피어나라 연꽃처럼

"화두를 드니 골이 아파 날마다 빗자루 들고 있소"



문성 노사는 매일새벽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며 율력에도 적극적이다.

항구 도시인 부산에는 수영만을 굽어보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산이 하나 있다. 그 산이 바로 장산(萇山)인데, 관음정사는 그 청솔 우거진 산자락과 번다한 저자거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중생들을 위해 관음의 원력을 펴고 있다.

처처가 청산이라는 말이 있다. 관음정사(부산 해운대구 반여 3동)에 들어서 보니 실제로 더 깊은 청산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저자거리의 소란스러움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가 싶더니 풍경소리만 뎅그렁 뎅그렁 들려오고, 노승이 햇볕을 쬐며 무슨 소리를 느릿느릿 웅얼거리고 있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귀를 세워 들어보니 선시 한 구절이다.

'마르지 않는 산 밑의 우물
산중 친구들께 공양하오니
표주박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저마다 둥근 달 건져가오.'

이 97세의 노사가 바로 둥근 달이 담겨 있는 산 밑의 옹달샘 같은 박문성(朴文星) 큰스님. 풍문으로 알고 있던 큰스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더욱이 문성 큰스님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조계종 감찰원장을 네번이나 역임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었으므로 강직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졸고 있는 모습을 뵈니 노고추(老古錐)라는 낱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음이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기봉(機鋒)이 이제는 완덕이 되어버린 경지이리라. 큰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인자한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을 물듯 이런저런 일들을 물어보았다.

시냇물처럼 투명한 삶

—큰스님,관음정사가 참 좋습니다. 바로 저기가 저자거리인데 곡심산유곡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큰스님도 좋으시지요?

"허허. 글거운지 어쩐지 잘 모르겄어. 나이를 먹으니 귀가 어둡고 잘 안보여. 관음정사 밥맛이 좋아."

—몇십년 하루 한끼만 드시고 오후불식 수행을 계속하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탐식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는 구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건 와전이야. 누가 날 각아내리려고 했는지 추켜올리려고 했는지 거짓말을 한 것이오. 삼식을 다 먹고 있소."

보살이 옆에서 귀가 어두운 큰스님을 대변해 준다. 큰스님은 아침에는 죽, 점심에는 밥, 저녁에는 간장에 두부 두세조각을 드신다고 한다.

—큰스님, 거동이 불편하신 요즘도 하루 일과는 털끝만큼도 어김없다고 들었습니다.

"100살을 밑자리 깔고 앉았지만 여력이 있는 한 예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냥 있으면 싱겁기만 하거든. 게다가 불교란 불사의 도리가 아니오?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

상좌 법성스님이 얘기해 주는 큰스님의 일과는 모래와 돌이 드러난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하기만 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가 되면 틀림없이 일어나신다고 한다. 그런 다음에는 손수 이부자리를 개고 청소를 한 다음 주력을 하신다. 예불은 무릎에 힘이 없으므로 법당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법당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참예하며, 예불이 끝나면 40여 분쯤 보현행원품을 독송하신다.

낮 시간에는 절대로 방바닥에 등을 대는 일이 없으며, 녹차를 드시기도 하고 은사스님이 물려준 좌복에 앉아 틈나는 대로 새벽에 독송한 보현행원품을 앞에 두고 정진을 하신다는데, 율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한다.

사실 이제 큰스님을 연상할 때는 호미와 빗자루가 먼저 떠오른다고 대중들이 입을 모은다. 율력의 시간 말고도 큰스님의 손에는 늘 호미와 빗자루가 들려져 있기 때문이다.

—큰스님, 요즘도 들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까?

"화두? 허허허"

평상심이 도라던 남전스님처럼, 날마다 좋은 날이다던 운문스님처럼 참으로 편안하게 과안대소하신다.

"화두를 드니 골이 아퍼 날마다 빗자루를 들고 있소!"

그러고 보니 큰스님은 당신이 들고 있는 빗자루로 법당 마당에 쌓여 있는 낙엽을 쓸어왔던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자 받아들였던 방편의 부스러기들을 비워내고 있음이 틀림없다. 아까부터 가끔 기침을 하듯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내 머리는 텅 비어버렸지 하는 의미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다.

고불이란 이러한 스님의 모습과 다름아니리라. 말하자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천진불로 입산한 후 다시 처음의 불성으로 되돌아와 있음이다.

"산에 들어올 때는 아버지 따라 들어왔어. 열세살 때였지요. 어린 자식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아팠겠지. 아버지가 울길래 나도 울었지. 하지만 속세의 형편이란 것이 나를 데리고 있을 수 없었거든. 내 입산은 그랬어요."

성철 · 청담 스님과 도반

그러나 그때의 아버지가 지금은 극락 정토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또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서 허허허 웃으신다.

큰스님은 경주 노서동에서 1897년 부친 박형일, 모친 김해 김씨 사이에서 태어나 1910년 당시 통도사 대강백이었던 채서응스님을 은사로 옥천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통도사 보통학교, 해인사지방학림,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조계종 감찰원장, 옥천사 마하사 등에서 주지를 역임했으며, 특히 옥천사 선방 백련암에서 성철, 서옹, 청담스님과 6년간 마루바닥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만큼 혈혈적지 정진을 하셨다고 한다.

—큰스님 독립운동을 하신 얘기 좀 들려주시죠.

"통도사에서 만해스님 차시봉을 한 일년 한 적 있소. 만해스님은 작설차를 아주 좋아했어요. 찾아오는 사람은 형사나부랑이나 속인 애국자들이었는데 차는 내가 다 끓였어. '니 손을 거친 작설차 맛이 좋다'고 나한테만 시켰으니까."

—차 심부름도 도 닦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지. 나이가 어렸으니까. 아무튼 만해스님의 영향이 컸을테지요. 내가 해인사에서 만세운동을 한 것은 그 당시 해인사에는 대중스님들이 80여 분, 학인들이 많이 잡아서 20여 명이 있었어.

독립운동 · 정화에 앞장

그때 만해스님이 육혈포삼발이 승어독천권(六穴包三發 勝於讀千卷)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여 학인들의 의기를 북돋았지요.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해인사에서 만세를 부르고 학인스님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경찰 두 명을 때려 눕히고 수도암으로 피신한 적이 있어. 어찌나 급하게 피했던지 법당에 부처님이 안 보였어요. 거기서 더 머무를 수가 없어 나중에는 은사스님이 계시는 진주 호국사로 가서 살았지."

—일제시대 33본산 주지회의 대표인 강대련스님을 명고출송(鳴鼓出送)시킨 일화도 들려주시지요.

"허허허. 당시 주지들은 대개 친일승들이었어. 그중에서도 33본산 주지들이 일제에 협력을 많이 했지. 본사 주지가 그러니 말사 주지도 따라서 친일과가 됐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같이 공부하던 도반 철, 팔 명과 의기 투합해 33본산 주지회의장을 쳐 들어갔지요. 그런 다음 수원 용주사 주지였던 강대련을 광화문 네거리로 끌어내 명고출송시켰어. 일본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 그 길로 잡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4개월을 살았지요."

큰스님의 파사현장의 정신은 해방 후에도 서슬퍼런 불교 정화운동으로 이어진다. 옥천사에서 선방을 열고 눈푸른 수좌들과 용맹정진을 하던 중의 일로 못내 아쉬운 일이었지만 청담스님이 문성스님의 의기를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이다.

> *"사람들이 날 미워할지 모르지만 옳은 중 한번에 만나려고 하지 마시오. 요즘도 서울에서는 중들이 싸워 대는 모양인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소. 진승(眞僧)은 하야하고, 외도가 입산한다는 말이지. 참중은 마실로 내려가고 외도의 무리는 절을 망칠려고 입산을 하고 있어. 허나 이 옛말이 일불제자인 우리 모두가 부처님 법이 좋아서 따르고 믿는다면 거꾸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소."*

"청담스님이 참 날 좋아했지. 하루는 옥천사로 나를 찾아와서는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그러길래 처음에는 거절했어. 포교도 못하고 법문도 못하는데 올라가서 뭐하느냐고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청담스님이 '지금 마구니들이 불법을 더럽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스님께서 올라와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니 서울에 올라와 정화운동에 동참하시지요' 하면서 하도 그러길래 정화운동에 참여하게 됐어."

—큰스님, 그때에 비해서 요즘 불교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날 미워할지 모르지만 옳은 중 한번에 만나려고 하지 마시오. 요즘도 서울에서는 중들이 싸워 쌈는 모양인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소. 진승(眞僧)은 하야하고, 외도가 입산한다는 말이지. 참중은 마실로 내려가고 외도의 무리는 절을 망칠려고 입산을 하고 있어. 허나 이 옛말이 일불제자인 우리 모두가 부처님 법이 좋아서 따르고 믿는다면 거꾸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소? 네 마음부터 찾아라

아침 해가 장산 너머로 중천에 오르자 관음정사를 찾는 이의 발길도 잦아진다. 젊은 학인 한 사람이 큰스님에게 다가와 삼배를 올리고 있다. 그러자 큰스님의 꾸지람이 터진다.

"눈을 부릅뜨고 수행해도 바른데 왜 헛풀이다니는가? 열라대왕이 신발값 청구한다는 얘기 못들었는가? 중생 한 사람 제도하고 가기도 바쁜데 말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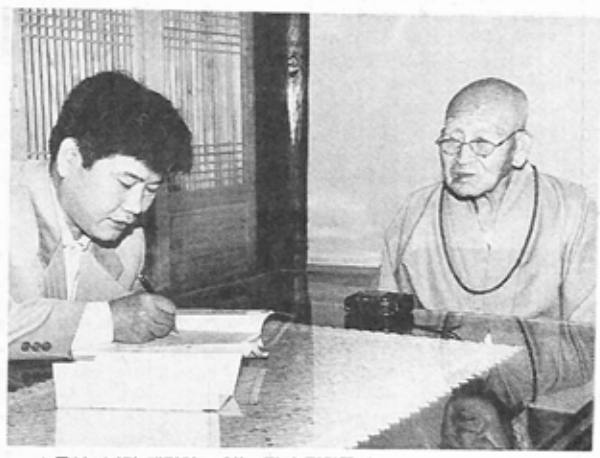
이번에는 한 보살이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자 일갈을 하신다.

"부처님은 시주돈 달라고 한 적 없다. 불전으로 어서 가 니 마음을 찾거라. 그래야 부처님 법 좋은 줄 알게 돼."

어느새 큰스님의 손에는 당신의 화두 같은 빗자루가 들려져 있다. 믿음을 도의 근본으로 본, 새벽마다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 보현행자의 구도자세와 다름아니다. 바람이 불었는지 법당 마당에 중생의 번뇌 망상 같은 낙엽이 한웅큼 떨어져 있다.

이리저리 굴구는 저 낙엽은 큰스님에게 있어 무엇일까. 혼잣말로 툭 던져놓은 큰스님의 한마디를 그저 속연하게 헤아려볼 뿐이다.

"법당 마당 꼬라지를 보니 눈들이 나! 나무아미타불!"



◇문성스님과 대담하고 있는 작가 정찬주씨

마음의 낙엽을 쓸며

약력

1897년 경주 노서동에서 태어난 문성스님은 13세에 입산 1910년 당시 통도사 대강백이었던 채서응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 이후 통도사 보통학교와 해인사 지방학림, 휘문고보,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했다.

통도사 만세운동과 친일주지를 몰아내는데 앞장섰으며, 이 일로 4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불교정화에도 참여해 조계종 감찰원장을 네차례에 걸쳐 역임하기도 했다.

20여년전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지금은 부산 관음정사에 주석하며 후학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 *"100살을 밑자리 깔고 앉았지만 여력이 있는 한 예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냥 있으면 싱겁기만 하거든. 게다가 불교란 불사의 도리가 아니오?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

창간

현대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ch 32

주춧돌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불국토에 계신 고승 대덕 큰스님과 불제자 여러분,
거룩하고도 성스러운 불사에 동참하시기를 호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히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는 공덕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포교와 전법의 혜명을 부처님께서 주신 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불교텔레비전 방송은 간절한 원력을 뿌리 삼아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 정규방송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서 벅찬 환희심이 솟구치고, 저절로 신심이 나지 않습니까? 불제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심과 기도를 모아 마음의 수미산, 보시의 바다를 이룰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대작 불사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2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2천만 불자이면 누구라도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불국토를 갈망하는 불제자님들의 뜨거운 결의가 식지 않는 한, 영상포교의 길은 바로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전국 2천만 불제자 여러분, 불교텔레비전의 주춧돌이 돼주십시오.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벽돌 한장이 되어 주십시오.
티끌 하나도 사라짐이 없는 세상, 이와 같은 공덕과 인연이 어찌 성불로 이어지는 돌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마음 안에 극락의 마당을 하나 이루시고,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주식 청약안내

■청 약 기 간 : 1994년 9월 10일~10월 31일
■청약서 교부처 : 전국 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청 약 한 도 : 1인 10주(5만원) 이상 2만주(1억원) 이하
■청 약 요 령 : ● 교부받은 청약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 날인하신 후 교부받은 사찰, 불교단체에 직접 접수해 주시거나,
● 아래 주소로 우송(등기우편)해 주십시오.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불교텔레비전 경영관리국 전화 : (02)3270-3471~3479
■청약금납입요령 : ●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의 지로창구에서 [지로번호 : 7614677]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납입하실 때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약금은 사찰이나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에서 직접 받지는 않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서울 ·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공호전기빌딩)
전화 : 3270-3300 팩스 : 3270-3498

창간특집 I 생활속에 피어나라 연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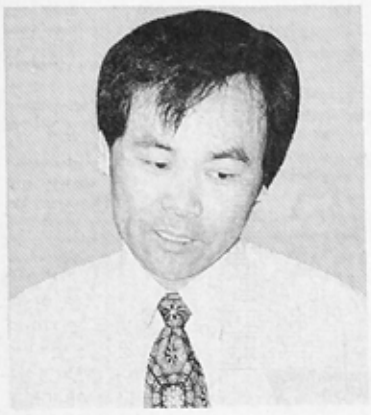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보살의 길이다. 불교의 생활화를 이끌어갈 본지는 창간기념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시대의 보살들을 만나본다.

이웃은 나…몸 나누고 마음바쳐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불가 침구학회」 사무실은 늘 아픈 사람들로 가득찬다. 엎드려 혹은 누워서 침을 맞고있는 사람들 틈새로 이 학회 대표 이홍재거사는 직접 침을 놓기도 하고, 증세를 묻고, 질문에 대답하고, 틈틈이 사무실 일을 보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10년째 매일 1백여 가까운 환자를 무료로 시술해오고 있는 이홍재거사를 주위에서는 '약왕보살'이라 부른다.

"침을 놓더라도 돈받고 하지말라고 침을 가르쳐 주신 은사께서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무주상보시로 하는 치료야말로 가장 큰 선업이라는 말씀이셨죠." '자비의 손'이라 이름붙여진 무료침술봉사의 집은 매일 6,7명씩 환자가 늘어나 올해만도 벌써 새환자가 8백여명에 이른다. 무료침술을 받고 나은 환자가 이 거사의 침술감의를 듣고 다시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일이 많다. 사무실 월세및 시술에 드는 각종 경비는 이 거사의 강의료로 충당한다.



이 홍 재 거사

〈불가침구학회장〉

무료침술 10년 "약왕보살"

오전 8시부터 환자가 몰려들면 환자를 돌보느라 점심은 오후3시 이후에나 먹기 일쑤지만 이거사는 푸둥한 기름으로 고달픔을 잊는다. 이러한 이홍재거사와 그 제자들의 정성어린 침술 덕분인지 큰 병원을 전전하며 병을 고치지 못해 애태우던 환자가 며칠만에 말끔히 낫거나 반신불수로 거동을 못하던 노인이 걸어나가는 등 기적같은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홍재거사는 또한 지난해 3월부턴 '나를 태워 빛이 되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조직, 인도고아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에겐 많다고 할수 없는 1만원이 인도고아 1명을 한달동안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시킬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인도명상봉사단체 '아난다마가'와 인연맺어 인도에 가 구제사업을 펼치고 아난다마가내에 있는 2년제 의과대에 침술학과도 설치했다. 매년 두번씩 의대생들에게 침술강의를 하고 무료 침술도 실시할 예정이다. 변변한 병원하나 제대로 없는 인도에 가서 무료치료도 하고 침술을 가르쳐 인도 곳곳에 침술을 펴겠다는 이홍재거사, 아난다마가의 봉사요원이 전세계에 퍼져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침술을 통한 요익중생의 서원은 한국에서 인도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갈듯 보인다.

〈이경숙 기자〉

점심 굶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자비의 집'(상계동, 미아6동 소재)에서 장지원경 보살(46)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물이다.

매일 아침 8시 신림동 집에서부터 자비의 집에 도착하면 노인들을 위한 급식준비에 들어간다. 시장을 보고, 밥과 국, 반찬을 만들고 김치도 담근다. 자원봉사자들과 급식체크를 마치고 난 오후에는 노인들에게 수지침도 놓아주고 말벗도 돼준다. 혼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소년가장 등이 있는 영세민 가정을 수시로 찾아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빨래, 청소를 해주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의류나 생활집기, 가구 등을 모아 필요한 집에 나눠주기도 하고 자원봉사미용사들이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이, 미용 수발을 드느라면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게 빨리 가버린다. 장보살은 원래 봉사심을 타고났는지 갓 시집와서도 동네 노인들의 수발을 든다거나 모시고 놀러가는 일을 곧잘 했고, 절에 가서도 손길이 필요한 곳 없나 늘 일을 찾아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장 지 원 경 보살

〈자비의 집 자원봉사자〉

신장기증 · 노인공경 앞장

장지원경보살은 지난 연말 교계언론의 집중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신장 하나를 만성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엄태암씨에게 기증한 일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얼마전 불자탤런트 석공렬씨가 장기를 7사람에게 기증해 크게 화제가 되고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나 동참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회의 인식이 깨어 있지 못하고, 더구나 불교계에서는 장기기증에 있어서 스님들조차 동참하길 꺼려하는 차에 장보살은 93년 5월 대원회 장기기증 본부에 자신의 각막과 생전시 신장을 기증했고 교계최초로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는 뇌사시 장기기증과 시신까지 몽땅 기증했다. 헌혈에도 인색한 불교계에서 이러한 기증약속도 놀라운데 그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지금도 가끔 신장기증한 엄태암씨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고 한다.

장기기증이 '불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장지원경보살은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밝히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 아름다운 부처님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펴 보인다.

〈숙〉

"사찰을 증축하고 시설물을 새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단을 만들어 불교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더없이 보람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행원문화상이 역경사업의 대명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 영 운 거사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역경 · 학술지원에 사재 털어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자비정신의 실천'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온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주영운 거사(71.아산레미콘 대표이사).

사업관계로 일본을 여행하던 중 호텔방마다 일어와 영어 경전이 놓여진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쉽고 잘 쓰여진 경전을 어디가서든 볼 수 있을까'하고 부러워했던 것이 씨앗이 되어 행원문화재단 설립으로 싹을 틔운 것이다.

주영운 거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위로 형이 있었으나 일찍이 세상을 떠나 손을 잇지 못하게 되자 아버님이 부처님께 득남을 서원하며 백일기도를 올렸다. 지극한 정성에 51세가 되어서야 막내인 주 거사를 얻은 것이다.

부처님과의 특별한 인연 탓이었을까. 20여년전 구입한 용인의 서전농원을 바탕으로 사업은 순탄하게 번창했고, 지난 90년에는 아산레미콘주식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부처님에 대한 보답과 그동안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를 생각하며 희향을 서원했다.

마침 중앙승가대 교수인 보광스님을 만나 상의하고, 이왕 희향할 바에는 불교발전을 위해 역경사업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문화재단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지난 91년 10월 행원문화재단을 설립, 올해까지 3억5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세차례에 걸쳐 모두 6천5백만원의 장학금과 교수연구비 역경사업비를 40명의 개인과 불전국역연구원 등 9개 단체에 지원했다.

"재산이 많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으면 되돌려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며 삶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따름입니다."

〈정성운 기자〉

수유리 누나. 1백여명이 넘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수유리 누나 채수선씨. 채씨는 물질적으로는 늘 부족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다. 지난 6년여 동안 채씨의 동생들이 보여준 '인간승리'의 절절한 모습들이 그녀를 언제나 부자로 살 수 있게 한다.

채씨는 수유리 집은 자신의 집 전체를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재활교육 현장으로 만들어 낸 소문난 여걸이다. 마루며 방마다 나무조각 헝겊 색지 점토들로 어수선한 채씨의 집. 말 한마디 한마디 이어



채 수 선 보살

〈재활의 집 운영〉

뇌성장애인 기술교육 헌신

나가기가 눈물겹도록 힘겹고, 팔 다리가 뒤틀려 보기에 안타깝기만한 뇌성마비 장애인들 30여명이 20여평의 채씨집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게 된다.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보다는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절절한 신념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작업이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채씨의 가슴은 언제나 새로운 각오로 차오른다. "야 임마, 조각칼 잡은 지 몇 분 지났다고 벌써 싫증이야. 너 우리 집이 첨 을 때 뭐라고 했어. 조각칼로 나무 다듬는 기술자 된다는 게 장난인 줄 아니? 빨리 앉아서일해!" 더러 요령을 부리고 싫증을 느끼는 동생들에겐 가차없이 불호령을 내리는 채씨.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서 자신의 사는 가치를 배우고 인간의 참맛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친구동생이 뇌성마비였는데 세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어요. 결국 제가 맡을 인연이다 싶어 시작했어요. 그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 이상의 큰 약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오늘까지 1백여명의 동생들이 늘어난 겁니다. 꼭 6년이 됐군요."

요즘 채씨의 집에서는 서른 명 정도의 동생들이 아침에 나와 저녁 때까지 전각 미싱 도자기 컴퓨터 등 자신의 일을 배우는 일에 더 분주하다. 연말에 작품전을 가질 계획 때문이다.

남의 집 쓰레기통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뒤져내고, 나무등걸을 구하러 전국을 떠도는 채수선씨. 채씨는 올 연말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우리는 해냈다'는 동생들의 환호성을 들려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인다.

〈임연태 기자〉

경찰계의 아이디어맨. 경기도경 보안과장 이동섭총경은 경찰생활 34년동안 서른여가지가 넘는 제도를 제안해 치안업무의 원활함과 범죄예방에 공헌을 세운 독보적 존재다. 이즈음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향장'제도를 비롯하여 '창변경찰' '이웃사랑 옷은행' '물박스' '이웃사랑 먼저인사하기' '3천보걷기운동' 등 곳곳에서 진행되고있는 지역공동체적인 운동이 그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과장의 지역공동체운동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불교적생활의 표현이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란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하나이고 또한 함께 부처가 되어야 하는 '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과장의 아이디어는 모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한다. 여망있는 노인을 향장으로 추대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풍기문란등의 미미한 범



이 동 섭 총경

〈경기도경 보안과장〉

샘솟는 불심 30가지 일 펼쳐

죄는 현장에서 따끔하게 훈계하도록 했다. 벙어리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112신고보다는 경찰의 순찰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몰박스를 설치했다. 긴박한 상황에 스위치만 누르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입지 않는 헌옷을 모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옷은행은 이제 지역마다 봉사단체가 이어받아 성황을 이루고 있다.

경찰의 총경이라면 높은 계급이다. 어쩌면 일반인과 접촉하기에는 거리가 있을 자리에서 이과장은 줄곧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해 왔다. 대민을 상대하는 경찰서의 서장으로 근무할때면 선봉장이 되어 솔선수범을 보였다. 내근으로 업무가 바뀔때는 각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공동체의식을 전파했다. 이제는 틈틈이 쓴 원고가 책으로도 출간되어 경찰은 물론 일반인의 동참이 늘고 있다.

이과장은 그림에도 남다른 특기를 갖고 있다. 한국미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그는 3년전 개인전을 개최해 수익금으로 장학회를 설치했다. 금년말에도 장학사업을 위해 개인전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그린 그림이 30여점. 앞으로 20여점을 더 추가하여 소품전을 열 예정이다.

풍경화를 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이동섭총경. 그의 그림은 언제나 부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담겨져 있는듯 하다.

〈이준엽 기자〉

청축간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진흥원이
불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불서 결정판!



통일불교성전

불교의 주요 경전을 엄선하여 교계의 권위 있는 필진이 우리말로 편찬한 법회용 최적의 불서. 초심자는 물론 원숙한 불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니고 읽어야 할 신행생활의 길잡이.
927쪽 / 7,000원

청소년 불교성전

청소년들이 불교의 진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과 문헌들을 엄선하여 우리말로 편찬.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인간형성의 길을 제시한 청소년용 법회 교재.
608쪽 / 5,000원

계간 多寶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는 종합학술정보지로 시론, 논단, 기획특집, 강좌/세미나, 교계보도자료편람, 불교관련 방송비평, 한국불교관계논지 총합색인, 교계 주요 행사 일지 등으로 구성.
각호 / 5,000원

통일불교성전 **설법지침서**

통일불교성전에 수록된 각 경전의 해제와 교리개관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불교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법회시 불교의 핵심을 보다 명쾌히 설법할 수 있도록 편찬.
465쪽 / 6,000원

韓國佛教總覽

1천 6백년 한국불교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불교계 최초의 종합자료집으로 총론(역사/현황/국제), 자료(종단/법인/단체기관), 목록(인명/사찰/불교문화재/불교도서논문), 법령(불교관계법령), 연표(한국불교사 연표) 등으로 구성.
1490쪽 / 85,000원



대한불교진흥원 ㊥121 - 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보빌딩 · TEL (02) 719 - 1855/6 · FAX (02) 719 - 5052 보급처 : 도서총판 대원사 · ㊥120 - 180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 - 27 · TEL (02) 323 - 5511 · FAX (02) 323 - 5611

천년 가족불심 우담바라 피웠네

고려초부터 새해기도 … "어길수 없는 가풍"

29대째 흥국사 신도 박상일 거사

이준엽 기자

29대째 신행을 펼치는 현장이 있다. 부처님과의 인연뿐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현장까지 대를 이었다. 그것도 가히 1천년 가깝게 부처님을 따르는 한가족의 현장이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박상일(法賢 55)씨 가족. 이들은 해마다 정월 초순이면 서울 구파발 흥국사를 찾아 정초기도를 한다. 그때그때마다 형편에 맞는 공양물을 정성껏 불단에 올리고서 '올 한해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정의 편안을 기원'해 왔다. 박씨의 할머니도 그러하셨고 할머니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 박상일씨 가족은 북한산 흥국사를 원찰로 정해 29대째 정초기도를 해오고 있어 스님을 따라 사찰을 옮기거나 이곳저곳 영험높다는 사찰로 옮겨다니는 철새 신도에 경종을 주고 있다.

발굴 취재

살아왔다. 단지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 정초기도를 했다는 말이 족보와 함께 집안에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당시에는 인근에 절이 많지 않았다. 멀리 할매산(오늘의 한미산)에 암자가 하나 있었을 뿐이다. 원효스님이 북한산에서 정진하던 중 석조약사여래불이 서기를 비추기에 창건한 흥서암(興瑞庵, 흥국사의 옛이름)이란 절이다.

"왜 해마다 절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지 의심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조상대대로 해왔다면서 당연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증조할아버지는 직접 기도를 하셨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대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부가 아들과 함께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조상 가운데 종류를 좋아하던 할아버지 한분이 계셨다. 종류에 밀려 흥국사에서의 정초기도가 소홀했었다. 그래서였을까, 당시 집안은 파산 직전이었다. 다시금 정초기도가 시작되었다. 집안도 다시 일어났다. 그후 지금까지 정초기도를 이어오면서 박씨 가문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박씨도 5세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흥국사를 찾았다. 절까지 30리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야 했다. 절 입구에 닿으면 잠시 여장을 풀었다. 흐르는 물에 손을씻고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다. 사시마지에 맞춰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했다. 두어시간 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해뜨기 전에 나온 집에는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비록 일년에 한번있는 사이건만 이를 위한 준비는 3백65일 전부였다.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박씨가족의 사찰참배도 잦아졌다. 한달에 한번은 흥국사 약사전을 찾는다. 신앙의 형태도 변화가 왔다. 3년전 박씨는, 대원불교교양대학을 졸업했다. 지난해에는 흥국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신교양대학을 수료했다.

육바라밀이 무엇이고,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는만큼 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흥국사주지 홍선스님은 박씨가족의 신행에 대해 "오늘의 신행생활에 많은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신행을 논리보다는 체험으로 접하는 생활불교는 물론 가족 모두가 원찰을 정해 대대로 신행활동을 펼치는 것은 보기드문 일이다"며 "스님을 따라 원찰을 옮기거나 어느 기도사찰이 영험높다고 하면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철새신도에 경종을 준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1남4녀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흥국사 정초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박씨일가의 신행은 맥을 잇고 있다.

불심 꽃피는 내집같은 회사

"웃는얼굴·부드러운 말"실천 … 이웃돕기 행사도

탐 방

풍산금속 불자회

경북 안강에 소재한 (주)풍산금속 불자회(회장 임석년)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씨를 생활화 하자'는 행동강령을 세워 직장과 사회를 선도해 가고 있다.

지역의 직장불교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1백60여명이라는 대가족이 활동하고 있는 풍산불자회는 '웃는 얼굴, 부드러운 말'의 실천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평이다. 1일 3교대 근무여건 속에 자칫 따분하게 여겨질 회사를 항상 웃음넘치고 희망찬 일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풍산불자회는 4년전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직장 동료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창립됐다. 이후 매일 아침 경전읽기를 통해 신앙심을 고취했다. 어느정도 신심이 싹트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회사와 가정과의 거리를 좁혔다. 매년 2회씩 사찰순례와 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하여 가족과 동료가 함께 호흡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회원들은 수계법회로 불자의 자긍심을 높였고 원각사에서 열리는 정기법회로 교리를 익히고 있다. 포교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는 풍산불자회는 직장동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회보인 '법고'를 매월 2회 발행, 사내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법고'에는 경전소개는 물론 동료들의 글이 발표되는가 하면 회사 내외의 움직임이 소개되고 있어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더불어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기금마련 행사를 기획, 매년 연말 사원돕기 성금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풍산불자회의 왕성한 활동은 직장내 최대규모의 신행단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풍산불자회는 안강지역에서도 탄탄한 신행단체로 성장해 지역포교에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안강유일의 포교당인 원각사 중창불사에 풍산불자회가 앞장서고 있어 근시일내에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이처럼 풍산불자회가 회사는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자 회사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정과 직장, 사회가 하나되는 불국토 건설을 위해 전회원이 정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임석년 회장은 "정기법회를 활성화 시켜 온가족이 참여하는 직장 신행단체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1백6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풍산금속 불자회.

〈안강=김중근 기자〉

나의 수행일기

송 석 구

<동국대 부총장>



신행은 극히 사적이며 비밀스러운 것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저 마음속 심연에 간직한 완성의 대상이다. 그러한 것을 천기누설 하듯이 공개한다는 것은 왠지 오랫동안 간직한 사람의 연가를 밖으로 노출하는 듯 하여 성큼 내키지 않는다. 이미 말이나 글로 밖으로 드러난 것은 죽은 것이다. 그곳에는 선악, 시비가 붙어서 내생의 무한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나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길잡이 역할이 될까 싶어서이다.

사실 나는 부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다. 젊은날 가장 왕성한 이성적 사고와 격렬한 열정이 엉키고 있을 때 불교를 접했다. 물론 한국인의 가정에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먼 산의 사찰을 따라 간 경험은 누구나 공유한 시절이 있다. 나도 그러한 어린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불교대학 철학과를 입학한 것은 50년대 중반의 실존주의의 영향이 크다. 사춘기에 문학과 형이상학에 깊이 심취돼 있던 나는 실존의 허무와 불교의 무상에 젖어 있었다. 좌절과 난과의 점은 고뇌는 불교의 무상이 없었다면 살아 남을 수 없었다. 나의 불교는



버린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증오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증오해도 그 일 자체가 풀리지 않았다. 내가 20년간 믿고 의지 했던 불교교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 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불광법회를 들렸다.

그 시절 광덕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믿음, 그것은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모든 부처님은 칭찬 하라.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은 바로 우리 주변 나를 에워 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

나의 아내, 나의 친구, 가족,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파멸로 이끈 그들이 곧 부처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소멸 시켜주는 곡진하신 부처님이다.

이 말씀이 곧 나의 깨달음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기 위해 참선도 하는 것이고 염불도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절도 하는 것이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한생각 무명의 소치이다. 그것이 곧 번뇌망상이다. 번뇌망상은 진리가 아니다. 일어난 생각은 죄업이고 죽은 것이다. 이때 부터 나는 직접

백팔배 20년 … "아직도 자책이"

이러한 인간조건의 자기불안 극복으로 크게 다가섰다.

나에게는 많은 도반이 있었다. 60년대초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상설법회가 적었을 때 경전 강의가 있다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군에 있으면서 서옹스님의 선, 탄허스님의 화엄경, 보조법어, 관응스님의 금강경오가해 성철스님의 법문과 3천배 등이 나의 지적 욕구와 믿음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론불교에 머물러 있을 뿐 불교의 수행이 몸에 배이지 않았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오체투지 한다는 것이 어색했고, 염불을 한다는 것도 미심쩍었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지 않는가? 내딴에는 불교를 잘 아는 척 했다. 부처님께 법보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치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없는 돈을 보시하고 더구나 축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만했다. 그러면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새벽에 일어나 읽었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좌선을 하고 살았다.

70년대 나는 나의 인생의 큰 기로에 놓였다. 나의 삶의 기반이 현실적으로 뒤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나를 그러한 생의 미로로 던져 목탁을 들고 고성염불을 하였고 매일 아침 108참회를 했다. 금년이 꼭 20년째가 된다.

한생각 일어나기 전의 나의 진면목,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예배,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찬탄 하는것, 그것이 일어난 생각을 부처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활이 항상 여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생각생각에 있는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이치는 이러한 데 있다. 결코 깨달음은 관념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긍정하고 그들을 인정할 때 깨달음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절에 가서도 예배가 쉬웠으며 염불도 갈등이 없었다. 법보시와 함께 재보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축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새벽 6시에 화계사 법당에 올라 108배를 하고 그곳에 있는 지장전, 나한전, 삼성각에 올라 부처님 한분한분께 절을 하고 나오면서 먼저 만나는 살아있는 부처님께도 인사를 한다.

결코 이글은 자랑이 아니다. 앞으로 이 글로 인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책임을 주는 글이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교의 현대화 대웅이 함께 합니다.

우리 불교의 소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찰의 음향설비, 이제는 전문업체와 상의해주십시요

불교의 현대화와 (주)대웅정보

이미 사찰 전산화를 위해 BBS불교방송과 함께 종무관리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옥외전광판(LED)을 통한불교방송의 문자뉴스방송사업을 준비중에 있는 저희 (주)대웅정보에서는 사찰의 구조와 기능에 알맞는 음향기기를 기획·설비함으로써 소리를 통한 대중교화사업에도 일조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새로이 음향사업부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원건축의 특수성과 음향설비

사찰의 음향기기 설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조건물이 대부분인 법당, 일반 건축물에 비해 높은 천정, 소리의 울림이 예민한 마루바닥, 한지를 바른 문짝, 일반적으로 산을 등진 채 계곡을 끼고 앞이 툭 틔여 있는 입지조건 등등.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건물로 지어진 도심지의 포교당이라 할지라도 스님의 독경이나 법문말씀이 보다 경건하고 그윽한 분위기 속에서 신도님들의 신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음향설비는 함부로 할 것이 못됩니다. 교회나 성당을 새로 지을 때 음향설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찰의 음향설비 대웅과 함께

저희 (주)대웅정보는 오직 우리 불교의 현대화, 과학화, 대중화만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각개 사찰의 여건에 맞추어 최적의 장비와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어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스님들의 상담에 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찰의 신규 음향설비뿐만이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까지도 이제는 저희 (주)대웅정보와 상의해주십시요.

(주)대웅정보
DAE WOONG DATA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80 효정빌딩 3F
TEL : 579-3500, 579-3656~8

(주)대웅정보는 사찰의 음향설비 전반에 관한 기획 및 보급만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소리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취재·기록해두어야 할 원로대덕스님들의 법문말씀, 일반 장비로는 원음을 제대로 담아내기가 어려운 각종 불교의식의 채록, 보다 깊은 감명으로 일반불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세지 등 소리에 관한 한 저희 (주)대웅정보와 상의해주십시요.

전화문의 주시는 사찰이나 단체에는 보다 상세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어미 설치된 음향기기에 대한 불만사항도 주저없이 저희 (주)대웅정보와 상의해주십시요.

이땅은 본래부터 불국토 - 한국의 불교지도

산 강 마을 곳곳에 '법향' 가득

불교가 우리 민족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수천년 역사동안 불교는 우리의 숨결과 핏줄에 녹아들어 맑고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한국인들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민족의 삶의 둥지인 이땅의 많은 곳이 불교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무의식중에 쓰는 많은 생활용어가 불교에서 나온 말들이다. 본지는 창간 기획특집으로 땅이름, 생활습관, 언어, 신도수와 사찰 그리고 문화재를 통해 이땅이 본래 불국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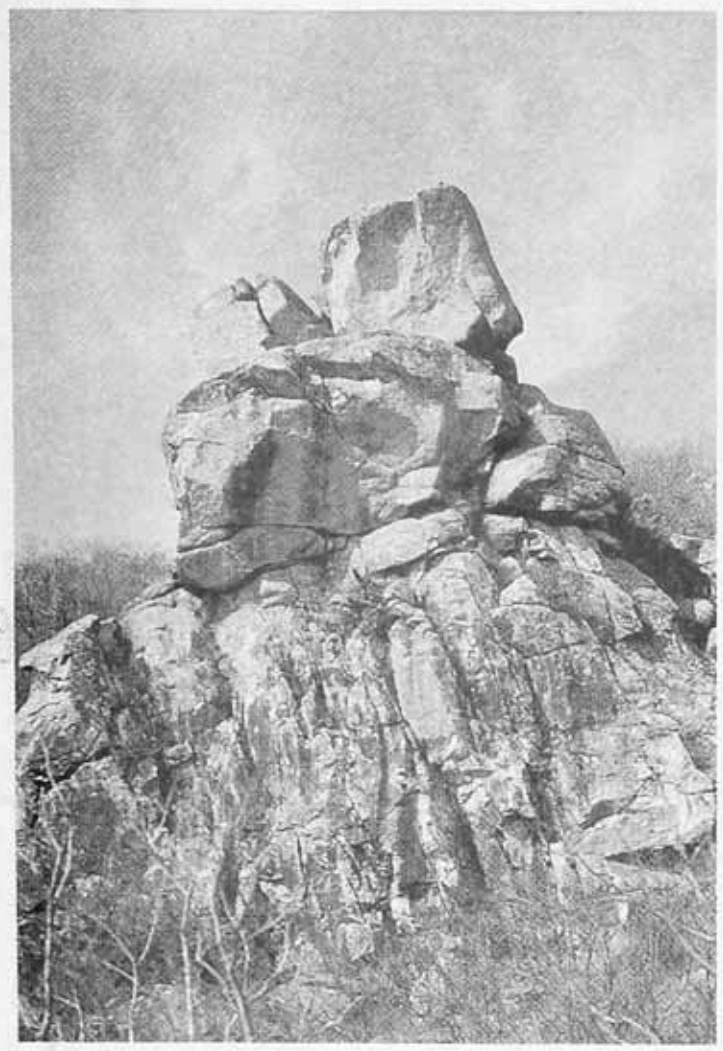


대상산 공법사 목탄 국보 유적 104호

보 기
사찰 수
신도 수
국보·보물급 불교 문화재 수
불교지명
대흥사
미황사
해남
강진
장흥
장흥 보림사
장흥 천관산
장흥 가지산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
장흥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 탑비 귀부 이수 비문 탁본 전시 안내 표지판 설명 끝 입구 매표소 앞 주차장 옆 길 따라 올라가면 보림사 대웅전 앞 석등 옆 삼층석탑 앞 마당 끝 담장 너머 보이는 산 능선 따라 걸어가면 사자봉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득량만 너머 고흥 반도 끝 봉우리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

이땅은 본래부터 불국토 - 한국의 불교지도

"민족문화 창달의 원동력"



◇ 금산 보리암 화엄봉 바위자체가 빛날 화(華)자의 한자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효스님이 바위위에서 화엄경을 독경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화엄봉'이라 부른다.

불교박물관이라 할 만큼 많은 성보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인들은 신라땅이 곧 정토세계임을 믿고 정토신앙을 숭앙했었듯 시대마다 지역마다 우리의 조상들은 불교를 믿으며 자신이 사는 땅을 불국토로 가꾸고자 했었다. 때문에 마을마다 고개마다 돌부처가 조각돼 모셔졌고 미래불이 자애로운 미소로 새겨져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다. 그 불상들이 지금은 국보니 보물이니 문화재로 지정되어 한국불교의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불·보살상이 국보·보물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교문화재 가운데 불상은 국보 25점 보물 1백52점 중요민속자료 1점등 1천78점이나 되고 보살상도 국보 13점 보물 31점 등 44점이나 된다. 이밖에도 건축물은 국보와 보물을 합쳐 64점이, 석물은 15점, 범종등 성물은 41점,석탑은 국보가 37점 보물이 1백8점이나 된다.

종단별로 나눠보면 조계종이 1천5백여만명으로 전체 불자의 절반이상을, 태고종이 3백80만명 천태종이 1백50만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8백17만 부산.경남 5백85만 대구.경북 4백42만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통계를 보여 준 〈한국의 종교현황〉외에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1991〉에는 불교인구의 남녀비율이 41대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이 21.2% 30~39세가 23.6% 40세이상이 55.2%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교인구의 고령화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범종단적 담불교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도수

지난해 문체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불교신도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4백5만6천명 중 절반이 넘는 2천8백98만5천2백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제일의 종교로서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불교는 「무종교인은 불교에 가깝다」는 말이 시사하듯 한국인의 심성에 가장 깊이 뿌리 내려진 종교로 평가되고 있다.

일상어된 불교말 많아 불자, 국민의 반수 이상

언어

불교는 언어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어 왔다. 무심코 쓰는 우리의 일상용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용어가 불교에서 나온 말인가를 따져보면 이땅이 불국토임을 또 한번 절감할 수 있다.

「이판사판」「야단법석」「아사리판」등의 어원이 불교에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단어들이 불교적 의미를 갖추었거나 굴절된 채 우리의 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용어와 일상용어를 따져 재미있게 구성한 책들도 인기리에 논아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고려시대까지의 거의 모든 생활용어가 불교용어였다는 학계의 발표로 비추어 본다면 불교인이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와 연관된 땅이름이나 산이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아직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불광○○교회' 이런 타종교의 간판을 보는데 풀어보면 '부처님 빛나는 마을 ○○교회'라는 뜻이니 손오공이 제아무리 날뛰어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타종교가 아무리 설쳐도 부처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가 우리의 말과 글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가는 새삼 따질 것도 없다.

- 웃자라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다.
-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 이판사판이다.
- 야단법석이다.
- 수라장이다.
- 공은 닦은대로 가고, 죄는 지은대로 간다.

이런 속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 감당, 작가, 장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칭과 단어들이 대부분 불교용어에서 그대로 전승되었다.

심지어 우리의 인사말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에 도 알고보면 불교의 '수고', 즉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오묘한 철학이 담겨있다. 고생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인생은 고해이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고의 연속이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옛 문학,예술에도 불교의 승결이 깃들어 있으니 〈심청전〉이 그렇고 〈회심곡〉이 그렇고 〈별주부전〉이 그렇다. 특히 〈별주부전〉은 부처님의 전생담인 〈자타카〉에 수록된 〈악어와 원숭이의 이야기〉를 악어대신 거북이, 원숭이대신 토끼로 바꿔 놓은 것이다.

들판이나 산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레를 하는 것도 들짐승 날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불교 가르침의 실천이며 과일을 딸 때 까치밥을 남겨놓는 미덕도 알고보면 더불어 사는 가르침의 실천이었다.

- 참새고기를 먹으면 그릇을 잘 깬다.
- 새끼밴 짐승을 잡으면 자식이 단명한다.
- 기러기를 잡으면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다.
- 원앙새를 잡으면 부부간에 사별수가 있다.

우리 조상들의 행동지침이었던 금기어에도 알고보면 살생을 하지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있다.

불교는 이렇듯 이땅에 들어온 후 천6백여년동안 우리의 승결, 우리의 핏줄 속에 녹아들어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하고, 맑고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우리의 인생관·가치관·세계관을 올바로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다.

만일 이땅에 불교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과연 무슨 문화와 예술을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숨막히는 산업사회에서 맑은 바람 한번 쐬일 곳이 있을 것인가! 사찰덕분에 자연이 보존되었고, 보존된 자연덕분에 관광이라도 할 수 있으니 따지고 보면 불교덕을 1천2백만 국민이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요, 관광한국의 자산도 불교가 아니면 대체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팔도강산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천년고찰들이 없다면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관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흔히 5천년의 문화예술을 자랑하지만 건축미술 조각은 물론 문화의 견인차인 출판인쇄도 불교가 시작했고 꽃을 피워 서양의 구텐베르그 보다도 70년이나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직지심체요절〉을 찍어냈으며 목판본 또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세계최초의 목판인쇄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불교는 이땅에 들어와서 우리 생활의 전부를 끌어 안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을 가꾸어온 어머니였다.

생명존중·더불어 살기 강조

생활습관



윤청광
(방송작가·출판협부회장)

해외여행은 SUMERU TOUR로



▶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대탑(사원)



(주)수미산여행사는 불자여러분의 성지순례 이외 여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마니푸르댄스 마니푸르주(州)



▶ 2000년 이상이나 옛 모습을 남기고 있는 신비의 대탑

업무내용

- 여권 및 비자 발급 수속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 불교성지순례
- 효도관광(회갑 및 칠순 기념여행)
- 단체여행(불교성지순례 이외 일반관광)
- 허니문
  (해외 — 방콕, 괌, 사이판, 하와이, 호주 등)
  (국내 — 제주 등)
- 기타 여행에 관한 사항
  1. 해외 여행자보험, 해외 호텔 예약
  2. JR PASS, 유레일 패스 등

신입사원모집

(주)수미산여행사는 창립5주년을 맞이하여 재창립의 정신으로 의욕에 찬 청년불자들을 기다립니다.

● 제1기 신입사원 모집 남: 00명, 여: 00명	— 95년 2월 졸업 예정자 — 관광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경력사원 남: 0명(T/C및 영업 유경험자) 여: 0명(카운타 및 O.P 담당)	—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
● 공히 고졸 이상인자	● 외국어 가능자 우대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최근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부부법회, 가족법회등 온가족이 참여하는 법회가 늘고 있다. 불자 가족이 함께 조계사를 참배, 기도를 올리고 있다.

가족법회 뿌리내리고 있다

가정화목 · 불교생활화의 밑거름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난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촌동 삼보사(주지 지원) 삼천불전이 예불소리로 가득하다. 조용한 분위기속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는 두손을 모으고 네살바기 꼬마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한가족처럼 목소리를 맞춰 가족법회를 시작하고 있다. 엄숙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가족법회 모습이다.

이처럼 최근 사찰에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법회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심을 새롭게 다지는 가족법회는 도심 포교당을 중심으로 각 사찰로 급격히 퍼져 실시되고 있다.

양재동 구룡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만불보전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법회를 열고 있고, 역삼동 강남포교원도 지하 대법당에서 가족들이 동참하는 일요법회를 열고 있다. 목동 법안정사, 삼성동 봉은사 등과 진각종의 각 심인당도 매주 일요일 오전 일요법회를 통해 가족을 불심으로 융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사찰들은 가족법회, 일요법회와 같은 시간에 따로 어린이 법회도 진행한다. 어린이 법회 회원의 3분의1 이상이 부모와 함께 절을 찾는 어린 불자들이다.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 절을 찾음으로써 미래불자들은 자연스럽게 사찰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맑은 심성에는 불심의 싹이 돋는다.

가족법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은 "일주일에 하루 온가족이 법회에 참석해 바른 신앙생활로 가정안에서 정토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층 가중시켜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가족법회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법회로 주목되고 있는 법안정사(원장 현도)의 부부법회. 매월 첫째 토요일에 열리는 부부법회는 지난해 10월 첫법회를 시작으로 매회마다 2백여쌍의 부부불자가 참여해 오고 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절에 오니 참 좋아요." 규진 · 규선자매는 부모님을 놓칠세라 뒤따라 가며 고사리손을 모아 연신 합장인사하면서 법당으로 따라 들어간다.

'다정한 사람끼리 손에 손잡고 부처님 곁으로 오십시오.'

사찰입구 게시판에 붙은 부부법회 참석안내문의 내용처럼 부부법회는 부부가 같이 법회에 참석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아내 혼자 오는 법회가 아니라 남편이 같이 함으로써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은 가족전체의 신앙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부부법회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신행모습에 대해 "알고 믿겠다는 불자들이 늘어나 스스로 기초교리강좌등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배우고 믿게되니 자신있게 가족과 친지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불법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법안정사의 현도스님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부법회로 인해 부부간의 금슬이 훨씬 좋아진 부부들이 여럿이라고 살짝 귀띔한다.

이같이 가족법회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요법회가 늘어난 데서도 연유하고 있다. 산업사회속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불자들이 그나마 여유있는 시간은 일요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 아들과 딸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께 참배하고, 스님들께 상담도 하고, 같은 불자를 만나 불교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수행의 장이 바로 일요일 열리는 가족법회인 것이다.

초하루나 보름에만 절을 찾아 예불을 올리는게 고작이거나 일년에 한번 부처님 오신날에나 절에 나오던 과거의 신행모습에서 벗어나 정기법회인 가족법회에 참석하는 가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족법회는 불자들에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형성하고, 신앙으로 결합된 가족과 가족이 법회속에서 다시 만나 신뢰와 웃음이 있는 이웃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가족법회는 개개인 불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감으로써 생활속의 불교를 심는 '불교의 생활화'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절에 오니 참 좋아요." 삼보사에서 만난 장규진, 규선 자매는 부모님을 놓칠세라 뒤따라 가며 고사리손을 모아 연신 합장 인사하면서 법당으로 따라 들어간다.

〈이은자 기자〉

이리후 건강칼럼 <1>

마 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대상인 마음이 있었을 뿐 현대와 같은 시각에서의 마음은 연구되지 못했었다.

근세의 문호 박톨 위고는 "바다보다 더 장대한 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더 장대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갈파했지만 그 반대인 마음도 오히려 더 많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는 말씀이 법화경에 실려 있다. 마음의 크기가 바늘구멍처럼 좁은 데서부터 하늘보다 더 장대함에 이르기까지 천차 만별인 것이 마음이고 또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마음일 것 같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의학적인 관심이 신체의학처럼 가시적이고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원인추구에 힘을 기울인 나머지 마음이란 것도 추상적인 가설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프로이드라는 많이 알려진 정신분석학자가 마음을 구조적으로나 지정학적인 이론을 내세워 분별을 했는데 그는 소위 원본능이란 생태적인 본능적 충동을 갖고 태어나서 성장과정을 통해 원본능의 과생물인 자아와 초자아란 것이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세가지 마음의 구조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안정되고 평화롭지만 균형이 갈등에 의해 깨어지면 긴장이 오고 급기야는 병적인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다. 다른 한 주장은 의식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의식이란 것을 가정하고 이 무의식이 의식 뒤에 숨어 인간의 행동, 정서, 사고등을 조종한다고 하는 이론도 내었다. 그래서 후학들은 그의 이론의 근간을 무의식론과 정신결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과 대단히 유사하다.

정신결정론이 어떤 결과도 원인지워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가설이고 인간이 나서 죽을때까지의 현세적인 것에 비해 불교에서의 윤회는 전생, 현세, 내세를 포함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의학은 다만 증거되지 않은 결과를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생이나 내세의 문제는 의학적 대상에서 제외할 뿐이다.

앞으로 의학이 더욱 발달하여 전생과 내세가 증명될 수 있을 땐 바로 의학의 대상이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네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병을 한번 추적해보자.

안정 · 불안등 모든 것의 근원



이 근 후 <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
· 1935년생
· 경북대 의대졸
· 대한법정신의학회장.
· 한국석불연구회장
· 현재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 저서 〈정신분석학〉 〈불타여 불타여〉 등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서점 ●
책방 如是我聞 은
이천만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737 - 0695 · 팩스 737 - 0696

불법을 공부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문 가까운 이웃으로 부터 절에 다니며 함께 공부하자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기도 의왕시 · 권남희)

답 불교란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뜻에서의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라 함은 이름일 뿐입니다. 참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면 종교로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배우는 궁극의 목표는 나 자신도 석가모니처럼 부처가 되려는데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불법공부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로소이다' 하며 살아온 그 '나'가 아니라 '참나', 즉 나의 진정한 실체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누구나 부처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감사한 나날…어떻게 갚아야 할지

문 부처님 법과 인연이 닿기 전에만해도 저의 생활은 매우 암담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학교라곤 국민학교 문턱밖에 못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 감사한 생각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갚아야 할는지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 · 구영순)

답 그렇습니다. 불교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누구나 살아가는 이치가 즐겁게 보이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환희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 고 하셨고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법' 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 공부엔 자격증도 필요없고 학력도 필요없습니다. 세간의 높다 높다는 지식처럼 누구에게는 이해되고 누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진리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정진하십시오. 그것이 불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전생의 업 어떻게 녹일 수 있나

문 사람의 몸을 받기까지엔 기막힌 인연이 개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업 · 습때문에 사람마다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 정달행)

답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빌어 이 몸뚱이 가지고 나올 때 수억겁의 선업,악업 다 짊어지고 나왔으니 현실의 고통을 누구에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키보드를 누를때마다 술술 풀려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업이 있다면 지금의 내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려 나오는 족족 몰락 되놓는다면 마치 녹음 테이프를 지워 빈 테이프로 만드는 것처럼 업은 점차 가벼워지고 마침내 깨끗이 지워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구멍에다 되놓아라.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닥치는대로 놓고 자유롭게 활보해 보십시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공부 도중 왜 가슴이 아련할까요

문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어라 말하기는 어려워도 가슴으로 아련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이것이 공부와 관계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괜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요.

(광주직할시 송정동 · 김문원)

답 불법공부와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일체 만물 유정무정이 그대로 다 불법인데 그 아련한 느낌이 확실치 못하대서 공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잘하든 못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나의 생활 일체가 다 근본자리로 나고 든다는 것을 잊지 않는데 있습니다. 내 근본자리의 나툼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이고 지금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못해 '나'라는 관념을 굳게 세워 놓고 거기에 매달려 개었다 흐렸다 하니까 싱그러운 생활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팔자 운명이 있는지요

문 얼마전에 땅문서 사기사건에 휘말려 자칫하면 곤욕을 치를뻔 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운이 좋았다고들 합니다. 정해진 팔자운명이 있는지요.

(울산시 남구 옥동 · 박영출)

답 자기의 팔자운명은 자기가 지어 가는 것이지 어디서 정해 주거나 미리 결정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지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오직 마음 뿐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고 그것이 호수의 파문처럼 전 우주로 번져가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되기에 빙글빙글 돌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밝으면 그대로 밝은 것이지 운명때문이 아니며, 마음이 어두우면 그대로 어두워지는 것이지 팔자 때문은 아닙니다. 부처님 법에는 팔자운명이란 없습니다. 삼재니 팔난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시원한 법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문 소위 마음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안다는 것과 마음을 본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서울 동작구 신길동 · 차인광)

답 안다는 것도 아니고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중에 배고프면 밥 찾아 먹고 졸리면 잠자는데, 그때 먹어야 하나 안먹어야 하나 잠 자야하나 자지말아야 하나 하고 따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먹고 자고 보고 듣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니까 네 마음을 보아라, 마음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고 대답하는 중에 마음을 안다, 마음을 본다는 그런 군더더기가 소용에 닿는지요. 보는게 아는 것이요 아는게 보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문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6

이유없이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 방지 매트

수맥은 과학입니다.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집터나 묘터를 고를때 지관을 불러 수맥을 살펴 명당을 찾았습니다.
• 수맥(水脈)의 氣란?
지하에 흐르는 중력수(重力水)를 말하며 인체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광물질이 모여 자기량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초고층상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엄청난 피해를 줌

수맥의 유해파를 차단하지 않으면
• 혈압이 높은 분들은 90% 이상이 중풍에 걸려 고생한다.
• 어린 아이의 경우 자고나면 경기를 해 위험수위에 오름.
• 밖에 나와 활동할때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밤이되어 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함.
• 몸이 무겁고 온 몸이 붓는 경우
•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잠을 잘때 잠을 설치고 뒤채어서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
• 매일처럼 두통·신경성 불쾌감 또는 신경통일 경우.
• 수험생일 경우 책을 봐도 정신집중이 안되고 산만해질때.
•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면 특별한 병명은 잡지 못하고 흔히 신경성으로 판정 받는 병.
• 임신한 분들이 수맥이 지나가는 방에서 기거하다가 배안에 기형아나 사산을 할 경우.
• 전체 인구중 수맥타는 체질 80% 이상이나 된다.
• 뇌성마비나 정박아·지체부자유등의 장애자 분들도 수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수맥을 알면 액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맥 연구가들은 인간 질병의 70% 이상이 집의 침실밑 혹은 조상 묘자리 밑의 수맥에 원인이 있다고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손이 없는 "무연고 묘"는 반드시 그 밑에 수맥이 있습니다.
"시름시름" 이유없이 아픈 사람은 반드시 수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맥의 유해파 차단—알파매트는
수맥의 유해파를 차단,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하므로 매사에 활력있는 생활을 약속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알파매트는 선물용이나 혼수용은 물론 효도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본사진은 2인용으로서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으며 배송은 별매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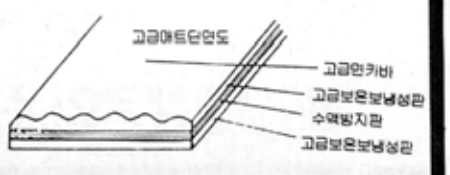
킹싱글매트
규격 - Double 140 × 200 Cm
Single 100 × 200 Cm
소비자가 DW 248,000 (VAT 별도)
소비자가 SW 218,000 (VAT 별도)

SBS—TV 4월17일
「그것이 알고 싶다」프로에
수맥의 심각성 방영!

"이제 십만원대 가격으로 수맥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 제품의 특징
1 본 매트는 수맥 방지판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수맥의 기를 완전 차단합니다.
2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하고자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3 완전한 요(매트)로써의 기능을 다합니다.
4 보온 보냉성이 뛰어납니다.



• 공급원
敏永實業
소비자상담실 : (02)208-7974~5
부산(051)317-5155



■ 극단, 작은예술 사랑모임

"참선으로 연기 다진다"

도필선 기자

'연습에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참선에 빠지는 것은 용서 못한다.'

참선을 통해 연극의 기본기를 익히는 극단 「작은예술사랑모임」(약칭:작예모)의 약속이다.

지난 93년에 창단해 지난달 제 18회 서울연극제 자유참가작 〈바람에 부러진 나무는 무엇을 탓하랴〉로 첫 공연을 가진 신참내기 극단 작예모는 참선을 통해 연기의 기초쌓기를 한다.

작년 창단때부터 단원들은 격주로 방배동 광명선원에서 참선수련을 하고있다. 작예모의 참선수련은 '연극인으로서의 정서와 기본기를 찾을 곳은 참선뿐'이란 연출가 김운기씨의 신념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10분이 지겨워 몸을 어떻게 가눠야 할지 몰라하던 단원들이었지만 이제는 1~2시간을 거뜬히 해낸다. 또한 그들은 참선수련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와 진실한 연기자의 자세를 함께 배우기도 했다. 지난 여름 찌는듯한 무더위에 이리저리 연습실을 찾아 전전긍긍해야 했고, 연극〈바람에 부러진 나무는 …〉에서의 장승과 석상등 미동도 없이 서 있어야 하는 역할의 따분함과 힘겨움을 이겨내는데 참선수행은 더없이 좋은 스승이었다는 것이 단원들의 설명이다.

단원들에게 있어 참선수행은 하나의 생각을 좇아 실타래가 풀리듯 고통을 없애고, 부자유스런 몸에서 한없이 자유로와지는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연출가 김운기씨는 "끊임없이 자기의 에너지를 무대공간에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연기의 기본기를 만들어 간다."며 "그런 욕망은 자신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경우에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관객을 향해 작품을 이해시키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란 소신으로 작품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극단 작예모는 향락적이고 선정적인 흥행위주의 연기를 거부한다. 참선에서 얻어진 열린 눈으로 메세지가 있고, 관객과 함께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연극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겠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각오다.

참선지도를 하는 초격스님은 "어떤 종교에도 구애받지 않는 보편성 속에 부처님 말씀과 참선을 접한 단원들이 참선을 통해 연극을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다른 극단들도 참선공부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공연을 마친 극단 작예모는 가난한 연극인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참선수행을 통해 순수예술의 참맛과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를 꾸준히 가꿔 나가고 있다.

연말 불교소설 '봇물' 예상

작가들 칩거하며 야심작준비

불교소설 작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올 여름이후 불교소설 출간이 중단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작가들은 새로운 야심작을 내놓기 위해 집필실에 칩거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봄에는 다시 묵직한 불교소설들이 대량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소설 〈칼의 어록〉을 내놔 화제를 모았던 백금남씨는 연말쯤에 일가족 43명이 출가를 한 일타스님(은해사주지)의 가족사를 소설화한 작품을 내놓는다.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백씨의 이 소설은 교계에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일타스님의 가족사를 미증유의 인연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 민족사가 책을 낼 계획이며 일타스님이 직접 고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찬주씨는 이미 지난 봄부터 〈열반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부처님의 열반지 쿠시나가라를 현장 답사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페스트 감염 사태로 답사가 연기돼 소설도 늦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정씨는 내달초에 선동화 〈생물과 바가지〉 시리즈 3권을 동시에 내놓을 계획이어서 완성한 작품활동을 과시하고 있다. 선동화라는 새로운 장르개척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게 정씨의 설명이다.

〈칼라빈카〉로 88년에 불교문학상을 받았던 김종록씨는 5권의 대하소설 「산국」을 곧 내놓는다. 이어 김씨는 선승과 풍수의 이야기도 장편으로 엮어낼 참이다. 또 김씨는 다음달쯤 유·불·선의 동양정신과 천문,풍수등에 입문하게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에세이집 「나는 이제 하늘을 보며 살아야 겠다」도 내놓는다.

한국 문학의 큰 산 고은씨도 왕성한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경향신문에 「나의산하 나의삶」을, 문학사상에 「멀고 먼길」을 월간조선에 「선」을 연재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현대불교에 「수미산」을 연재한다. 폭넓은 작품 영역 속에 깊이 있는 글로 독자의 가슴을 희워주는 고은씨는 최근 완간한 민족서사시 〈백두산〉에 이어 다음달 시집 〈독도〉(가제)를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종교신문에 「선글사의 빛」을 연재했던 하유상씨도 속편 「석굴암의 비밀」을 쓰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씨는 이 두 추리소설 형식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 연말에 내놓을 생각이다.

최근 30여일간 러시아 기행을 다녀온 윤후명씨는 「돈황」을 주제로 12년간 써온 작품들을 한데 묶어 연말에 내놓는다. 「명사산의 소녀」 「돈황의 사랑」등 돈황관련 중편 4편을 묶어서 〈돌사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펴낼 계획이다.

속칭 정치승들의 실상을 소설화한 〈사리〉를 월간 조선에 연재중인 이청씨는 이 연재가 끝나는 대로 「조계종 분규사」를 정리 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이씨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분규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지만 이 분야의 정리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남지심, 황충상씨가 올 연말내지 내년봄을 목표로 장편을 쓰고 있다. 문화일보에 「국수」를 연재중인 김성동씨도 내년에 책을 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백금남씨



◇황충상씨



◇김성동씨



◇김종록씨



◇남지심씨

대한민국 종교음악제 성료

지난 13일, 「종교와 국악의 만남」 주제로

94 대한민국종교음악제가 지난 13일 오후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다섯번째 열린 이날 음악제는 「종교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열렸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종교가 참여한 이번 음악제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신모듬'을 서곡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음악제에 참가한 불교합창단(지휘·유문식)은 「무상게」「탑돌이」등 다섯곡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심장병아동돕기음악회
불교사회봉사회

한국불교사회봉사회가 주최하는 94심장병, 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은 이 음악회에는 강남포교원 합창단과 엄정행, 양은희씨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찬불가와 가곡을 들려준다.

「붓다의 노래」 공연
22일 조계사청년회

조계사 청년회 보리수합창단의 제16회 정기연주회 「불교의 노래」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서대문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준형씨의 지휘로 서울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덕신스님과 원심회 회원들이 출연 수화노래도 선보인다. 이날 공연되는 「붓다의 노래」는 효경스님의 글에 정부기씨가 곡을 붙혀 92년에 발표한 대형 교성곡이다.

시민위한 국악대제
울산불교문화원

울산 불교문화원이 주최한 울산 시민을 위한 국악대제가 지난10일 오후 7시 울산KBS홀에서 열렸다.

국악과 불교음악의 진수를 연주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도시연, 울산 처용무, 국악관현악과 승무, 국악관현악과 찬불가 등이 연주됐다. 또 신영희, 박양득씨의 관소리와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신모듬」등도 연주돼 참가자들의 갈채를받았다.

불교음악의 대향연
내달 5일, 불교음악연구회

한국불교음악연구회는 11월 5일 오후 7시 KBS홀에서 불교음악 대향연을 펼친다.

고즈넉한 가을 저녁, 불교계 작곡가 4명의 창작곡과 찬불가로 꾸며지는 이번 음악회는 고소화, 김희진 외 4명의 독창과 정옥녀, 김희경씨의 지휘로 11개 합창단의 화음으로 꾸며진다.

참가 합창단은 청룡사, 한마음선원, 조계사등 11개 합창단이며, 천안 동여자중학교 학생들도 특별출연 한다.

원학스님 초대전
불교신문 천5백호 기념

불교신문 지령 천5백호기념 원학스님초대전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공평아트홀에서 열린다.

원학스님은 이번 초대전에 산수화와 수묵화를 내놓는다.

원학스님의 산수화는 동양의 정신을 불교적인 안목으로 해석한 것이 특징이며 수묵화는 선승의 독특한 수행경지를 반영하고 있다.

스님은 불교미술대전과 동아미술제, 국전등에 다수 입선했으며 이번 전시회는 다섯번째 개인전이다.

〈문의 = 733-1604〉

소설 수미산 다음주부터 연재



◇작가 고은씨와 최규일 화백

한국 문학의 큰 산 고은선생의 반세기 문학을 회통하는 소설 「수미산」이 현대불교신문 2호 부터 매주 10면에 연재된다. 삽화는 전각 예술의 영역을 탄탄히 다져 온 현암 최규일씨가 맡는다.

미생물까지 총동원된 우주의 대교향곡

작가의 말

「수미산」의 문학행위! 이 길고 긴 여정은 내 문학의 한 종점이기도 하다.

몇해전 불교방송국의 설립자 장상 문선생께서 소설「화엄경」을 간행한 직후의 나에게 불교의 세계관이 담긴 소설을 극진하게 권하신 바 있어 그 인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것을 탐구하는 일을 포기하고나서 비현실이다. 신비다, 허구다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까지 허구였던것이 현실의 가장 구체적인 세계로 밝혀지는 일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드높여 온 것인가.

나는 지구의 곳곳만이 아니라 우주의 도처에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상상과 체험의 합치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소설「수미산」은 불보살은 물론이거니와 일체중생 그리고 신들과 미생물 또는 물질의 미립자들까지 총동원되어 활동하는 우주의 대교향악을 연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의 초대형 건물로삼아 그 안의 희노애락과 진리에의 의지가 하나하나 살아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 목적을 거기에 두고있다.

수미산의 세계체계는 소승불교에서 구성된 것이지만 바로 그 소승과 대승은 상층되지 않고 연면하는 상즉성의 화엄을 실현하게 된다.

때로는 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엄연히 소설이기도 하고 아니 작자가 아닌 어떤 전생의 기억 장치가 나와서 마구 퍼부어대는 서술의 폭포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문학, 이제까지의 세계문학, 이제까지의 불교문학에서 결핍 되었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뜨거운 서원이 지속될 것을 믿으며 「현대불교」의 싱싱한 독자들의 사랑과 채찍앞에 나는 한 적나라한 작가로 서 있다.

「수미산」을 쓰는 동안 내 책상은 책상이 아니라 수미산의 여러 하늘이요 그 밑의 여러 지옥이리라.

글 속에 녹아든 마음의 그림 그릴터

화가의 말

한국 문학의 큰 산이라 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고은 선생님의 작품을 내 어줍잖은 재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감격스러우면서도 두렵기도 하다.

스승도 없이 내마음의 그림을 좇아 전각에 매달려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맺게되었다.

「수미산」이란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환하게 열리는 소설. 그 문학의 높이를 경허한 마음으로 뒤쫓으며 내 가난한 예술혼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싶다.

나는 사실 신문에 삽화를 연재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장인정신 하나만 지키며 살아왔을 뿐이다.

내 전생에 무슨 아름다운 인연을 심었기에 이같은 자리에 몸을 두게 되었는가. 기꺼운 마음으로 고은 선생님의 문학에 금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심는 길이 아니겠는가.

百聞而不如一見

지금까지 이런 한자교재는 없었다

이래현 선생
한자 특수 암기 비법
실용신안특허 제49356호

한자 특수암기비법 비디오

한국사회의 漢字복권운동

한자암기비법 – 그것이 알고 싶다

충격특보

●이래현 선생님의 20여년의 연구결과와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짧은시간에 전혀 무리없이 익혀가는 가장 이상적이며 완벽한 속성 교재이다.

"한자암기비법 특허획득"

영재한문비디오를 보기전에는 한자암기비법에 대해 말하지 말라.!

漢文

영재비디오스쿨
VIDEO SCHOOL

정상적인 한자교육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기업·구청·성당·개인들이 한자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지도층 인사들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왜 지금 우리에게 한문의 중요성이 다시 논의되는가?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知力에서 나온다. 우리 민족문화의 길잡이였던 漢字를 안 쓰면 14억 한자(유교)문화권에서 고립된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상호보완」이란, 우리 문자생활의 슬기…, 한자를 안 쓰는 것은 한 날개를 도려내는 것…, 한쪽 날개만으로는 문화도 국가도 비상할 수 없다

더 이상 한글 세대를 만들지 말라!

■대리점 개설문의 ☎ (02) 393-2328

■ 구입문의처· TEL. (02) 362 - 8641~4

MEDIA 영재 뉴미디어 NEW MEDIA

김지장의 덕화 구화산에서 세계로

신라성인 교각스님 열반 1200주 행사 기행

중국 구화산 / 차차석부장

○ 신라승 김지장의 수행과 덕화가 살아 숨쉬는 구화산. 중국불교의 4대성지 ○
○ 중의 하나이자 한국불교의 큰 자장인 구화산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여 ○
○ 일간 평소와 다르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 기간동안 구화산에서 ○
○ 는 김지장보살의 성도 1천 2백년을 기념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현 ○
○ 대불교 신문은 창간에 앞서 김지장보살 성도 1천 2백주년 기념행사를 현 ○
○ 지취재하고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과 광우스님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


인덕 스님 (구화산 방장)

대담


광우 스님 (한국 비구니회 부회장)

중국의 구화산이 지장신앙의 성지이며, 신라출신 김교각스님께서 지장보살의 응현으로 중국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근년의 일이다.

여행을 살찌우기 위해 지장사상과 김교각스님에 대한 기초자료를 검토했지만 눈을 끌만한 것이 없었다. 모두가 단편적인 기록이나 시가 내지 전설에 불과했다.

김교각스님에 관한 국내 자료가 전무한 것은 물론이었다. 불교학도의 한사람으로서 김교각스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부처님의 가을 햇살과 같은 따사로움과 애틋함이 김교각스님의 종교적 생애 속에서 풍겨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교각스님을 참배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출발한 것은 9월 3일 오전 9시 35분이었다. 2시간여의 비행 끝에 상해의 무지게다리(虹橋)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항주를 거쳐 김교각스님의 육신보전이 있는 구화산까지 20여시간의 지루한 버스여행을 해야만 했다. 도중에 비친 차창 밖의 풍경은 이국적이기보다 한국의 한적한 시골길을 연상케 했다. 수로가 발달한 절강성의 도작지대를 거쳐 안휘성으로 들어오자 볼나무 밭과 차나무 밭으로 산과 들이 덮여 있었다. 바로 중국의 비단과 녹차의 주산지가 안휘성이었다.

장대비속의 축제

오후 4시 김교각스님 열반 1천2백주년 기념행사가 화성사 앞 뜰에서 열렸다. 비온 직후라 사방이 축축한데도 수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폭죽과 축제의 열기 속에 쌓여 있었다.

성지순례를 빙자한 관광객의 호기심과 어설픈 기획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의 몸골, 농악과 고전음악의 양상블과 같다고나 할까. 중국에 대한 나의 환상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9월 5일은 김교각스님께서 열반하신지 1천2백주년 되는 날이다. 음력 7월 30일이 재일인데 중국인들은 아직도 음력을 기준으로 재일을 기념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거행되는 열반재에 참석하기 위해 9시경에 교각스님의 육신이 모셔져 있다는 육신보전에 도착해보니 사람들로 발 디딜 곳이 없었다. 동행한 스님들과 함께 육신보전에 들어가 3배를 하고 나니 형언할 수 없는 설움이 젖어왔다.

무슨 인연으로 멀고도 먼 이곳 구화산으로 올 수 밖에 없었을까. 상상하기 힘든 고행을 통해 교국과 동족에 대한 그 리움을 삭인 것은 아닌가.

원래 구화산은 오래된 도교의 성지였다. 구화산의 수호신이 도교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육신보전의 응접실 입구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을 수호신으로 모셔 놓은 것 등에서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김교각스님이 오셔서 불교의 지장성지로 바꾸어 놓았다. 도교의 땅에 대한 사상



◇김지장 육신보전 앞에서 9월 5일 거행된 천 2백주년 기념행사에는 세계에서 불자 만여명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원내는 차차석부장)

생애와 사상 조명 … 성역화 한창

성을 불교의 땅에 대한 사상성인 지장사상으로 대체한 것이다. 땅에 대한 사상은 모두 포용적이며, 여성적이다. 역학적으로는 음의 사상에 해당한다.

또한 생명을 포용하고 양육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구화산을 불교로 교화한다는 것은 지장사상이 가장 적합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도 구화산 일대의 불교는 도교의 불노장생이나 신선사상과 융합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백세궁의 육신보살이나 청양행에 있는 방계사 대흥화상의 육신보살 등이 전적으로 그것을 뒷바침했다. 민중과 융합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리라.

열반재가 끝나고 화성사를 참배했다. 화성사는 교각스님께서 제갈절이란 신도의 도움으로 구화산에 세운 최초의 사찰이다. 지금은 매우 퇴락해 있었으며, 구화산 역사문물관이 되어 있었다. 전시된 유물이나 사찰의 법구를 촬영하자 관리인이 못찍게 했다.

화성사 앞뜰에는 남남탑지가 있다. 이것은 교각스님의 어머니를 추모하는 탑이란 설과 신라에서 건너 온 애인을 추모하여 만든 탑이란 설이 있다. 문화혁명 때 탑신은 파괴되고 건립 터만 남아 있었다. 세상의 일은 늘 변하는 것이며, 변하는 것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무상설인데도 애틋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만이 지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퇴락한 사찰의 모습이나 허허로운 남남탑이 현재의 중국불교 현실이라면 교각스님만이 화성을 지나 부처님의 성으로 들어가고 고달픈 중생들은 화성사 앞뜰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감회일 것이다.

허허로운 낭낭탑

9월 6일에는 구화산 불학원(2년제 불교대학) 2학기 개학식에 참관하기 위해 일정을 서둘렀다. 50여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다고 했다. 연변에서 유학 온 교포스님이 2명 있어서 통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낡은 시설이나 부족한 교재등 불학원의 여의치 못한 살림살이를 도서관 내지 강의실을 둘러보면서 느꼈다. 이곳이 잘되어야 중국불교가 회생할 것이란 생각을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청명이란 스님의 안내를 받았는데 매우 순박했다. 한국불교신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몇푼 안되는 여비를 기부했다.

오후에는 육신보전에서 참아정진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밤 10시에 육신보전 주지스님의 배려로 11시 30분까지 지장정근을 하면서 절을 했다. 여정에 지친 몸이라 그런가 지척에 있는 지장보살을 뵐 수가 없었다. 여래는 음성이나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했으니 분명한 것은 종교적 실천으로 나타나리라 자위해 보았다. 절해고도와 같은 해발 2천고지의 산정에서 무심히 앉아 계셨을 교각스님을 생각하니 자꾸만 왜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날에는 오전 10시부터 김지장에 관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동국대학교 사학과의 조영록교수 발표 논문과 몇몇 논문 이외에는 이렇다할 논문이 없었다.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조박사님의 논문이나 요지만 발표한 박태근박사의 미발표 논문에 많은 기대를 걸기로 해본다.

▲광우스님: 자리를 마련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지장보살의 성도 1천2백주년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어 보기에 좋습니다.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각지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지장신앙이 중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덕스님: 전체 불교인구의 약 60%가 지장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중국불교가 문화혁명의 비운을 겪은 것도 업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은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중국불교 회생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광우스님: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생각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며 그 종교학적 의의는 어떻게 이해되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덕스님: 지장보살은 자비스런 서원의 힘으로 지옥중생까지 제도하겠다는 큰 뜻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지요. 지장

보살행 일화 많이 남겨

신앙의 의의도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인류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우스님: 지금도 구화산에 오기가 쉽지 않은 데 옛날에는 무척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구화산에서 김지장보살께서 수행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덕스님: 해상교통로가 발달하여 신라에서 한국까지는 쉽게 올 수 있었다는 점과 당시 중국의 중심부인 북경지역은 매우 혼란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신라는 장보고의 활동으로 해상무역이 발달했던점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광우스님: 김지장보살께서 구화산에 오시어 많은 보살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지요.

▲인덕스님: 당시 구화산은 도교의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김교각스님 이후 불교의 지장성지로 바뀝니다. 기타 빈민구제나 교화사업 등 보살의 응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비로 부처님과 동일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한국불교와 중국불교의 문화교류에 대한 방장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덕스님: 저는 한국과 중국이 원만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지장보살은 한국의 문화, 예를들면 차, 법씨, 소나무, 흰개 등을 가지고 중국 구화산에 와서 불법을 배우고, 지장성지를 개척하여 중국의 민중들을 교화했습니다. 그러한 인연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광우스님: 한국불교와 중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인덕스님: 중국불교는 문화혁명기 간등안 상상할 수 없는 화절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발전 도상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불교도 역사의 한 시점에서는 시련을 겪기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불교전래 역사를 볼 때 중국을 통해 한국불교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두 나라의 불교는 서로에게 배움의 자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나 중국불교가 공통적으로 경계해야할 것이있다면 들질에 오염되지

"청정한 계율을 근본으로 엄격히 수행할 때 불교의 내일은 밝습니다"

말고 엄격하게 수행하며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광우스님: 김지장보살의 원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할 생각입니까.

▲ 인덕스님: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인간상호간의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구화산의 불학원은 〈지장본원경〉을 철저하게 가르쳐 지장보살의 서원을 계승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 광우스님: 한국의 불교신도들은 구화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장스님의 법문을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인덕스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국의 불교신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스님들의 수행방법과 발전된 생활양식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중국불교는 승복의 색깔도 한국스님들과 달리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년에 남방불교의 영향을 받아 전래의 전통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스님들의 엄격한 수행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광우스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그만큼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경제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인덕스님: 불교는 대립과 갈등을 없애 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형제요 더없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시켜 줄 것입니다. 나아가 편견과 미신의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 광우스님: 한국불교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인덕스님: 무엇보다 우선 청정한 계율을 근본으로 삼으면 정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질은 많은 종파가 통일되어야 불교가 현대 사회 속에서 제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엄격한 수행이 전제조건입니다. 사람이 재주가 있으나 덕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며(有才無德無用) 덕이 있으면 재주는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有德無才可以用) 덕이 있고 재주도 있으면 중용할 수 있습니다.(有德有才可以重用) 불교인들은 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광우스님: 불교의 세계화는 어떻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 인덕스님: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행적인 측면에선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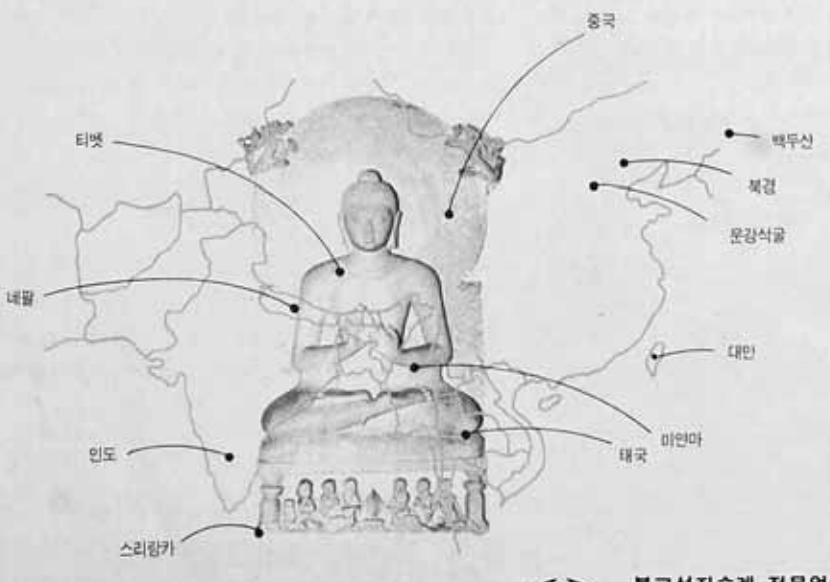
제가 미국에 가 보니 등상인들처럼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행이 없는 불교는 생명력이 없지요. 불교는 이론과 수행을 겸비해야 합니다.

▲ 광우스님: 스님 개인적으로 지니신 불교에 대한 신념을 말씀해 주십시요.

▲ 인덕스님: 불교는 청선을 해야합니다. 청규를 지키고 예불하며 노스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중생제도를 위해 선사라할지라도 정토를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출가 수행자나 불교신자들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배워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대립 갈등 푸는게 불교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네팔 · 태국 11일
· 출 발 : 11월 6일, 12월 3일 동 참 금 165만원
· 일 정 : 서울 - 델리 - 사르나트 - 부다가야 - 나란다 - 영취산 - 죽림정사 - 바이살리 - 쿠시나가르 - 스라바스티 - 룸비니 - 카트만두 - 방콕 - 서울

· 수천년 베일 속에 가려진 금단의 신비
티벳 · 네팔 11일
· 출 발 : 11월 5일 동 참 금 230만원
· 일 정 : 서울 - 카트만두 - (스와이얌부닛, 보드닛) - 라사 - 시가체 - 장백 - 라사 - 카트만두 - 서울

· 부처님 처사리 친견
스리랑카 8일
· 출 발 : 11월 11일 , 12월 2일 동 참 금 108만원
· 일 정 : 서울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 - 폴론나루와 - 시기리아 - 담불라 석굴 - 캔디 - 콜롬보 - 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 태국 11일
· 출 발 : 11월 4일, 12월 9일 동 참 금 140만원
· 일 정 : 서울 - 방콕 - 앙곤 - 파간 - 만달레이 - 앙곤 - 페구 - 앙곤 - 방콕 - 서울

· 중국 불교문화의 진수
중국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11월 4일, 12월 2일 동 참 금 195만원
· 일 정 : 서울 - 상해 - 계림 - 서안 - 낙양(용문석굴) - 정주 (소림사) - 태원 - 오대산 - 대동(운강석굴) - 북경 - 서울

· 4대성지와 불교유적지
중국 4대 불교성지 21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9일 동 참 금 270만원
· 일 정 : 서울 - 상해 - 보타산(관음보살도량) - 항주 - 황산 - 구화산(지장보살도량) - 남경 - 상도 - 아이산 (보현보살도량) 서안 - 낙양(용문석굴) - 정주 - 태원 - 오대산(문수보살도량) - 대동(운강석굴) - 북경 - 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 기념비, 보로부드로 사원
인도 네시아 5일
· 출 발 : 11월 6일, 12월 4일 동 참 금 85만 원
· 일 정 : 서울 - 바리(덴파사) - 족자카르타 (세계최대의 불교 기념비, 보로부드로 사원) - 자카르타 - 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 발 : 10월 23일, 11월 27일 동 참 금 65만 원
· 일 정 : 서울 - 타이페이 - 고웅(불광사) - 화련 - 타이페이 - 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헤초여행사 대표전화 : (02) 544 - 1533

독자토론

음력 법회

신앙적 전통 계승위해 유지돼야 찬성
생활양식 변화…일요법회 적합 반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행 형태는 바뀌어야 할것인가. 본지는 신행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자 월1회 독자 여러분과 신행의 제반사항을 점검해 보는 독자토론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음력법회(재일법회)를 주제로 독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다음달 주제는 '가정불단'.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김 인 숙 씨
〈주부〉

80년대 이후 포교운동의 활성화는 한국불교의 저변을 넓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도시화의 확대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속에서 기다리는 소극적 포교로는 대단히 어렵다. 도시 속에서 직접 대중과 접촉하는 신행의 정착화는 필수적이다. 도심 곳곳에 마련되는 포교원이 앞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국불교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인의 생활에 맞는 포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포교대상이 다양화되는, 즉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연령의 다양성이나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넓혀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적인 확대에 따르는 형식의 변화가 도심지의 포교원에서 나타나는데 있다. 다름 아니라 전통적인 음력기준의 법회를 양력기준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도시인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된 법회라는 명분은 좋으나 그러한 명분을 좇은 나머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음력법회를 서구종교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 법회를 봉행하려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찰에서 치루는 재일법회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매월 8, 14, 15, 23, 29, 30일은 육재일(六齋日)이라 하여 재가자가 삿된 일을 삼가고 행위를 조심하여 선행을 닦는 정진일로 삼았다. 또한 매월 초하루와 18일, 24일, 29일은 신중기도와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으로 정해 불, 보살의 원력을 이어받는 기도를 올린다. 이러한 재일을 합하여 십재일이라고 하는데 결국 한달에 열흘 이상을 정진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 놓았다. 오늘날에 와서는 육재일은 생략하고 거의 초하루와 지장재일, 관음재일만을 모시고 있는데 그나마도 '주일'에 맞춰 법회를 한다면 불교고유의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현재도 일요일은 학생법회나 가족법회 등으로 활용하는 사찰, 포교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좋은 일이며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시인의 생활이 일주일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음력기준의 재일을 생략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만일 음력 사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재일법회를 거르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불교명절, 세시풍속을 양력으로 바꿔 치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일 역시 생활양식에 따라 거르고 축소할 수 있는, 임의로 정해서는 안된다. 재일법회는 각 재일에 따라 여법하게 모셔지고 대신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육바라밀의 생활화(월요일은 보시, 화요일은 지계 등)로 일주일의 의미를 새기도록 하고 일요일은 학생, 가족법회나 구역법회를 하는 날로써 그 내용을 알차게 꾸리도록 하자.

우리의 전통은 단절 없이 계승되고 발전 시켜 그 내용을 풍부히 할 때 더욱 값지게 된다는 점을 부언한다.



김 경 래 씨
〈강동 경찰서〉

사찰에서 갖는 법회는 관음재일이나 지장재일 아미타재일 등 재일을 중심으로 한 법회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법회들은 물론 신도들에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아미타불 등 불보살의 원력을 이해시키고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특정 날짜를 잡은 것인만큼 일단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65일 불보살들의 원력을 되새기며 부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된 도리이겠지만 그래도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만은 사찰에 가서 신심을 키워가고 신앙태도를 스님들에게 점검받도록 하는 등 신도들을 절분위기에 가깝도록 유도한다는데 재일을 마련한 근본 뜻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취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날짜를 잡되 음력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모든 생활패턴이 1주일을 단위로 정해지는 직장인들이나 어떤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재일을 지키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재일이 신도들을 사찰로 유도하자는 뜻에서 마련한 방편이라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방편도 모습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재일을 감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바꾸자는 제안까지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음재일이나 지장재일이 일부 가정주부들이나 노인분들에게만 절에가는 날로서 지켜질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법회로서의 기능을 흡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또 그렇게 되려면 이왕이면 온 가족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짜로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가족법회나 청년학생법회, 어린이법회 등 법회가 대상에 따라 기능별로 잘 돼나가는 사찰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찰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교육내용이 다양해 환경문제나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불자로서 풀어가야 할 과제로 던져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기복신앙에만 머물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재일만이 최고처럼 지켜지는 사찰의 신도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기복신앙에 물든 젖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단지 재일을 음력으로 정해서 생긴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재일을 양력에 따라 정하든 토요일, 일요일로 정한다고 해서 극복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재일법회가 보다 공동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야 하고 참석대상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조계종단도 개혁의 닻을 높이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재일을 지키는 신앙형태도 이같은 흐름에 따라 보다 현실에 적응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할 수 있을까?

생활수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가을 창이 벌나게 투명한 이유를 나는 모른다. 찌든 도시의 골목골목에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 오고, 나무들은 소리없이 잎새에 물을 들인다. 빨갛게 노랗게 물을 들인다. 창문너머로 가을이 와 있음을 어느날 갑자기 느끼게 된다. 그런 순간 나의 가슴에도 빨갛게, 노랗게 가을물이 든다. 창문 너머의 가을과 내 가슴속의 가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로 고향의 시냇물같이 투명한 창. 그 창이 벌나게 투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모른다. 가을 창이 벌나게 투명한 이유를.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창 밖의 가을과 내 가슴 속 가을이 같은 색의 가을임을 나는 알고 있다. 사춘기 소녀의 얼굴 같은 색, 그 빨갛고 노란색의 가을과 투명해 뵈는 아픔의 상념들이 교차되는 짧은 순간에 나는 알것 같았다. 가을은 창 밖에도 없고 내 가슴 속에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안팎이란 구별조차 없이 다가 온 가을을 말이다. 빨갛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은 색조차도 없는 가을의 진면목을 나는 알것 같았다.

가을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슬픈일인지도 모르겠다. 안팎도 없고 색채도 없는 가을, 이 가을은 진정 나만의 가을이다. 나만의 가을을 간직한 것 자체는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다.

아, 나는 모른다.

가을 창이 벌나게 투명한 이유를, 그리고 나혼자 알고 있는 가을이 무엇인지도 사실 나는 모른다. 다만 아는체 했을 뿐이다. 아는체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일진대 나는 감히 아는체 하며 가을 창가에 서 있었다. 백치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 이제 가을을 담아가자. 가을의 풍요를 담고 가을의 투명함을 담자. 그리고 여름내내 동해바다를 사모해 바닷빛으로 드리워진 가을하늘을 바라보자.

홍혜정
〈마포구 동교동 167-31〉

만화

法句經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마음은 모든일의 근본

이 향 원



신흥사 어린이 불교학교, 청소년 수련원 개원 20주년기념

창간 불대불교신문

상금1천만원 전국어린이, 청소년, 특수포교지도자 포·교·대·상 수상자 발표

이 땅의 불국정토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포교하고자 마련한 전국 포교 대상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특수포교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야별 단체와 개인적으로 올린 서류를 엄정히 심사하여 선정된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가 불자로서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부처님 전법에 혼신을 기울이며 오늘도 포교 일선에서 묵묵히 포교하는 지도자들을 보니 우리 불교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법은 부처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일이고,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 제일 가피를 주시는 일입니다.

수상자와 시상일을 알려드리오니 꼭 참석하시어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 : 대한 불교 조계종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시상식 :
• 일시 : 불기 2538년(1994년) 10월 16일 오전11시
• 장소 :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수상자 : • 어린이 지도자 대 상 : 조오근
최우수상 : 천수은
우 수 상 : 변병열
우 수 상 : 곽인철
• 청소년 지도자 대 상 : 정완석
최우수상 : 한영옥
우 수 상 : 김영효
우 수 상 : 류재희
우 수 상 : 송석범
• 특수포교지도자 : 대 상 : 최영철(찬불가)
대 상 : 정홍찬(군포교)
최우수상 : 박근호(교도소)
우 수 상 : 채수선(장애인)
우 수 상 : 안효진(교도소)
우 수 상 : 김정환(군포교)
우 수 상 : 이웅규(군포교)

상금 1천만원 신흥사 어린이, 청소년 포교 20년 교사 공로 대상 수상자 발표

어린이 청소년 포교 20년을 하루같이 혼신을 기울여온 우리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긍지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번 수련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상금 1천만원 전국 어린이, 청소년, 특수 포교 지도자 포교대상'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동안 20여 년을 불심으로 스님을 도와서 어린이 청소년 수련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리 신흥사 선생님들께도 격려가 되고자 '상금 1천만원 교사 공로 대상'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수상자와 시상일을 알려드리오니 꼭 참석하시어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수상자 : ⊙ 70~80년대 교사 공로대상 : 이 희 숙(국민학교 현직교사로 불교학교 자원봉사)
공로금상 : 김 득 영(〃)
공로금상 : 허 안(〃)
공로금상 : 김 향 순(〃)
⊙ 어린이, 학생회 출신 교사 공로 금상 : 정지용, 한준구, 노현호 정찬웅, 홍희숙, 최상규, 조성진
⊙ 90년대 교사 공로대상 : 최 순 덕(국민학교 현직교사로 불교학교 자원봉사)
공로금상 : 정 원 길(〃)
이 숙 기(〃)
박 성 봉(〃)
⊙ 단체 공로 대상 : 은석국민학교(불교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원 장 오 성 일 합장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42—1
☎ (0339)57—3916, 2695

[TANK]
탱크처럼 튼튼한 제품 탱크처럼 오래쓰는 제품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해가는 이정이 대우전자의
탱크주의입니다

창 간
현대불교신문

제품은 튼튼하게 생활은 편리하게

대우전자



신혼출발 대잔치

튼튼하고 편리한 탱크제품으로 사랑받아온 대우전자가
올가을, 알뜰하고 실속있는 신혼출발대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신부님들은 꼭 참여하세요.
기간 : 1994.10.10 ~ 10.29 (20일간)

신혼 가이드 결혼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책자를 드립니다.



혼수 무료 견적서 가전혼수품 구입에 대해 문의하시는 예비신부님들께 무료로 견적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청첩장 제작 번거롭고 신경쓰이는 청첩장만들기. 고급청첩장을 실비로 제작해 드립니다.



비디오 아트 앨범 신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가져오시면 멋진 음악과 배경이 함께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실비로 제작해드립니다.



결혼식행진 연습 테이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 행진을 미리 연습해 볼수 있는 오디오테이프를 드립니다.



- 입체트 세이프TV DTQ-2591FWS/25" ₩826,000
- 초간편 VTR 락한번 DV-G892 6헤드 Hi-Fi ₩566,000
- 입체냉장고 탱크 FRB-472DNT/470ℓ ₩954,000
- 공기방울세탁기Z DWF-9290RDPS/9.2kg ₩773,000
- 원터치 전자렌지 KOG-840KS ₩325,000
- 조용한 청소기 탁백 RC-705 ₩198,000

※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이벤트행사 복권을 드립니다

혼수선물

가전혼수품을 구입하시는
고객에게 고급 사은품을 드립니다.



구입금액	사은품 내용
100만원이상	파카글라스홈세트
200만원이상	초내열 도자기세트
300만원이상	신혼여행 샘소나이트가방

※ 혼수이벤트행사는 참여 대리점에 한합니다.

■ 고객센타 : 서울 : 360-8282, 080-023-8254(글로버서비스-수신자 요금부담), 부산 : (051)469-8282, 대구 : (053)357-8282, 광주 : (062)529-8282, 대전 : (042)623-8282, 제주 : (064)53-8282 ※표시된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임.

공동체마을 운동이 번져간다

동체대비 실천하는 새 신행 뿌리내려
자원봉사 후원회원 2만5천명 되는 곳도

정성운 기자

사찰을 비롯한 각종 불교계 복지시설이 불교공동체의 삶을 일궈내는 터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법흥사 연꽃마을과 광주 향림사,·연꽃마을 용인양로원, 치악산 소쩍새마을, 보리수마을, 치자마을, 부처님마을 등으로 적게는 7, 8명에서 많게는 1백여명이 한울타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따르는 생활을 일구고 있다.

법흥사 연꽃마을의 경우 지난 84년 버려진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노인 47명, 학생 50명 장애인 20명 등 모두 1백21명이 한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은 30명, 광주 향림사는 50여명이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학생들이다. 소쩍새마을은 고아 정박아 미혼모 무의탁 노인 등 2백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의 손발과 눈이 되어주는 맑은 영혼으로 부처님마을을 이루고 있다.

3명의 미혼모와 4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대구 보리수마을(원장 오정)은 그동안 불교적 관념에서 배척했던 미혼모들의 상처를 어우르고 새삶의 터전을 일구는 곳. 이곳의 노인들은 서류상 조건이 안맞아 양로원에도 갈 수 없는 처지로 이곳에서 미혼모와 그들의 아기를 돌보며 한식구로 살아간다.

이밖에도 파주 대비양로원은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해 노인들과 어린이, 자모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이루는가 하면, 거제의 치자마을(원장 도공)은 지체장애인들의 보금자리를 꾸려 자비공동체의 삶을 일궈내고 있다. 경주 부처님마을은 10년째 불교문화재 탐사와 보호를 통해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공동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서울 상계동과 미아동에서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펼치고 있는 자비의집(회장 동광)은 부근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어 결식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한편 지역사회 열린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살려내고 있는 곳이다.

이들 '마을'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대부분 무의탁자이거나 지체부자유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곳에서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공동체의 삶은 서구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불교적 정서로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인가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의탁자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비공식분야의 사회사업이라는 점에서 불교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또한 봉사활동이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자비의집'의 경우 후원회원 8백명, 자원봉사자가 3백명이며, 매달 후원회비도 5백만원 가량 기탁되고 있다. 서울 관명의원을 비롯 청주 군포에 노인무료병원과 용인에 무료양로원을 운영하는 서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후원회원이 2만5천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연꽃마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매달 2천5백만원의 후원회비가 답지하고 있으며, 2백여명의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진료를 돕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9월에는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성덕,방생선원 원장)가 결성돼 자원봉사의 체계적 조직적 실시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4백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국립의료원 자광원 관음대비원 길음종합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전문복지단체로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시민대학을 열어 호스피스 등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교계 복지시설은 운영비 및 자원봉사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봉사자연합회가 창립되자 21곳에서 자원봉사를 의뢰해올 정도이다. 자원봉사 내용은 근로봉사에서부터 방송모니터보고서 작성 전화상담 이미용 컴퓨터 자료입력 등 전문소양이 필요한 분야까지 다양하다. 특히 호스피스 방송모니터등 비교적 전문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자원봉사는 미미한 현실이다.

불교공동체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는 불교의 자비실천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현실화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의미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와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승가대 이경호 교수(불교사회복지학)는 "불교계 복지사업이 이제는 의식주 해결에서 정서적 교육적 측면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경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사회사업의 모형계발과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성철스님 1주기 해인사 8만4천배 기도

열반 1주기를 맞는 성철스님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철스님 추모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해인사 큰법당에서 봉행된다.

해인사 백련암 백련문도회는 성철스님 1주기를 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참회법회를 오는 17일 입재해 24일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법회는 성철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7일 동안 모두 8만4천배 참회기도를 올리게 되는 행사이다.

한편 성철스님의 상좌인 백련암 원택스님은 지난 5일 미공개 성철스님 유품인 친필도서목록 1부, 묘엄스님에게 내린 사미니계 본 1부, 명치 45년 도리사 태조선원 동안거 성휘안거증서등과 청담스님과 도선사에서 1964년 같이 쓴 서원문 1부등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구인사에서 봉행된 추모재에는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 남대충스님의 법덕을 기렸다.

남대충 대종사 1주 추모재
2만 천태종도 법덕기려

천태종 제2대 종정 남대충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법회가 지난 7일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단 스님들과 천태종도 등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도용 총정의 증명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법회에서 전운덕 총무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남대충 대종사는 관문사 건립, 역경사업 등 종단의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 진행중인 각 불사를 원만히 회향해 새 불교운동에 천태종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원씨 최우수상
불교교화원 법문대회

한국불교교화원(이사장 한정섭) 주최 「제3회 법문대회 및 제1회 법사품수식」이 지난 3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개최되 최우수상에 「중생이 살아가는데 네가지 어려움」을 주제로 납문한 구자원씨가 선정됐다.

이번 법문대회에서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14명의 법사가 참가했다.

화성 신흥사 포교·공로상 제정
조오근씨등 6명 수상 … 상금 2천만원

16일 시상식

신흥사(경기도 화성 소재) 청소년수련원(원장 성일)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포교대상과 공로대상을 제정하고, 오는 16일 오전 11시 수련원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

어린이, 청소년, 특수분야 교사를 대상으로 제정된 이 상의 첫 대상은 조오근, 정완석, 최영철, 정홍찬, 이희숙, 최순덕씨등 6명이 받게됐다.

포교, 공로 각 부문에 1천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지도자 부문 : 최우수상 천수은, 우수상 변명열 외 1명 ▲ 청소년 지도자 부문 : 최우수상 한영옥, 우수상 김영효외 2명 ▲ 특수포교 지도자 부문 : 최우수상 박근호, 우수상 채수선외 3명

▲ 70-80년대 교사 공로 부문 : 금상 김득영외 2명

▲ 어린이, 학생회 출신교사 공로 부문 : 금상 정지용의 6명 ▲ 90년대 교사 공로 부문 : 금상 정원길외 2명

한편 단체 공로부문 대상에는 은석국민학교가 선정됐다.

'학림불교회관' 개원
6백평 규모 상계동에

서울 신도심지인 상계동에 대형 단독 불교회관이 개원,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게됐다.

노원구 상계동 363-2 (노원역 우성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학림불교회관은 지난 7일 점안식을 겸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수락산 학림사 회주 도원스님이 7년여의 각고끝에 완공을 본 학림불교회관은 대지 1백60평 건평 6백여평 규모로 1·2층 유치원, 놀이공간, 3층 문화회관 교양대학 4층 각종 강의장 5~7층 법당 요사 선방 및 독서실 등이 들어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통한 포교에 주력하게 된다.

법난위, 「문학의 밤」 행사
16일 산중다원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진관)는 오는 16일 저녁 7시 산중다원에서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철도, 지하철 노동자를 위한 기금마련 일일찻집과 함께 진행되는 문학의 밤 행사는 청화스님의 문학강연과 진관, 지원, 성일, 수안스님의 시낭송으로 이어진다.

낙동강 연등 대법회
16일 을숙도서, 부불련주최

제4회 낙동강 연등대법회가 오는 16일 오후 1시 낙동강 하구언 을숙도 광장에서 열린다.

부산직할시 불교연합회(회장 정관)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연등대법회는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불교도의 원력으로 사회를 맑고 청정케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데 촛점을 맞춰 진행된다. 아울러 부산의 경제, 문화, 체육발전의 전기가될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도 발원한다.

본 행사에 앞선 식전행사에는 불자노래자랑, 연등 만들기 대회를 비롯 김홍국, 장미화등 불자연예인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수륙대재와 기원법회, 유등행사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자의 날」 제정
의정부시 회룡제서

의정부·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산)가 주관한 남북통일기원 영산대법회가 지난 7일 의정부 시청앞 청소년광장에서 봉행됐다.

의정부지역 문화제인 제9회 회룡 문화제행사 일환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지역 사암스님을 비롯 시민들 5백여명이 동참, 남북평화통일과 민족화합을 기원했다.

1부 법회에서 대회장 원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회룡문화제는 본래 이지역에 위치한 회룡사에서 명칭이 탄생하여 불교와 인연이 깊으나 그동안 불교계의 참여가 없었다"고 밝히고 "금년부터 지역 사암을 주축으로 불교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호 부터 지면 대폭 달라 집니다

산문밖의 禪등 신선한 기획 풍성한 읽을거리

- 열린마당 : 교계 안팎의 주간 시사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진단분석.
- 만평
- 한국 불교 거듭나기 캠페인
- 신행수첩 : 한주 동안 동참할 만한 신행현장 안내
- 나의 수행일기 : 명사들의 신행에 얽힌 진솔한 수행담
-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이타행을 하는 불자 및 승가를 밀착 취재한다.
- 내일을 여는 불자 : 불교의 미래를 열기위해 땀 흘리는 불자들의 얘기를 듣는다.
- 신행단체 탐방 : 직장, 기업, 기관 불자회 탐방
- 산문 밖의 禪 : 삶의 현장에서 생활선을 조명한다.
- 목정배 교수가 쓰는 생활불교 : 용어중심의 교리를 생활속에 융해하여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체로 풀어나간다.
- 이주일의 법구 : 부처님의 체취가 풍기는 초기경전 〈잡아함경〉을 매주 한 구절씩 공부한다.
- 길을 묻는 이에게 : 독자의 신행상담에 대행스님이 답을 준다.
- 대형 인터뷰 : 만나고 싶었던 사람, 화제의 인물을 찾는다.
- 지상 법석 : 대덕 스님들의 설법을 지상중계한다.
- 다시 풀어쓰는 경전
- 불교속의 과학, 과학속의 불교 : 불교가 과학적 종교임을 영남대 김성규 교수가 쉽게 풀어쓴다.
- 소설 수미산 : 우주를 소재로 쓰는 고은씨의 대 야심작이 전면을 장식한다.
- 주부 신행담 : 주부들의 신행일기 코너
- 만화 법구경 : 법구경의 가르침을 만화가 이향원씨가 오늘의 대화로 재구성한다.
- 명사들이 추천하는 불서 100선
- 불심시심 : 한국 선사들의 계승에 스민 시심과 불교적 가르침을 음미한다.
- 건강페이지 : 이근후 건강 칼럼등 현대인의 건강 길잡이를 싣는다.
- 독자토론 : 바른 신행을 위해 매월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

지형스님 법화경 1천부 법공양
부산불교거사림회 초청법회서

부산불교거사림회가 주최한 「지형스님 초청법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5백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지형스님(창원 구룡사주지)은 「깨달음의 길」이란 주제 설법을 통해 "참된 성품은 밖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보살행은 여러중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정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리에서 지형스님은 부산불교거사림회에 스님이 권역한 「묘법 연화경」 1천부를 법공양했다.

창립10주 기념법회
부산불교복지상조회

부산불교복지 상조회(이사장 리가권)는 「창립 제10주년 기념 대법회 및 효도위안 큰잔치」를 10월 15일 토 오후 2시 구덕실내체육관에서 봉행했다.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현대불교가 힘차게 첫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불교의 내일을 열어갈 현대불교는 매주마다 신선한 기획, 풍성한 읽을 거리로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994년 10월 15일

현대불교신문사 직원일동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라



창간 현대불교신문 32 1962-1994 創立 32周年

重工業立國의
開拓精神으로 이어져온
漢拏 32年의 歷史

지난 1962年부터 우리나라 重工業發展을 先導해 온 漢拏가 10月 1日로 創立 32周年을 맞이했습니다. 漢拏는 重工業 不毛地나 다름없던 70年代初 처음으로 重裝備를 國産化, 國內供給은 물론 輸出을 해왔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지잔시멘트工場을 비롯하여 國內外에서 各種 工場을 턴키 베이스로 受注, 施工하는 등 남다른 技術力과 事業實績을 誇示해 왔습니다.
漢拏는 이제 造船, 自動車部品, 建設重裝備, 産業設備, 建設, 시멘트, 資源開發, 海運 등 重工業中心의 事業分野에서 豊富한 經驗과 最新 技術을 바탕으로 한 強力한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世界를 活動舞臺로 하여 高度成長을 하고 있습니다. 漢拏의 事業場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環境保護를 最優先 課題로 삼고 人類福祉向上에 盡力하고 있는 漢拏는 希望찬 21世紀에 世界的인 超優良企業으로 飛躍할 힘찬 前進을 하고 있습니다.
漢拏와 함께 "快適한 環境에서 豊饒를 누릴 人間의 꿈"을 實現합시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레미콘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C&C · 한라제지 · 배달학원

우드텍 자연주의

창간 현대불교신문

자연 생활, 마루 생활

온돌전용 나무 마루재

우 드 텍



새로운 마루 생활이 시작됩니다.

목재 고유의 따뜻한 감각



특성

참나무 원목
반영구적
다양한 색상
열전도가 뛰어납니다.
뒤틀림이 없습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주요시공 실적

-현대건설 평창동 VILLA
-한라건설 시그마 주상복합
-나산건설 보래매 주상복합
-나산건설 서초 주상복합
-동부건설 무연동 VILLA
-신동아건설 압사동 VILLA
-현대건설 춘천봉의 VILLA
-애경 DEPT(점포용)
-롯데 DEPT(점포용)

거실에서 주방 · 온돌방까지 원하는곳 어디나•••

자매품 : 일반 매장용

WOODTEC

KSY 利生産業株式會社
우드텍사업부 : 강남구 도곡 2동 454-56
(도곡전시장) 동화B/D내 전화 : 579-2793~4
本社 : 서울 江南區 論岘洞 423-5 (덕영빌딩)
전화 : 572-0662 / FAX : 575-9728
주요업종 산업냉동 · 종합 무역 · 식품기계 ENG · 건설자재
레저산업(동서울 스포츠 센터)

서울 대리점 구산 코퍼레이션 (02) 515-9653~4
코인상사 (02) 564-3171
경기 대리점 이건산업 0341) 987-9151~9
뵈닉스 (0342) 701-8055
진흥주택 (0331) 282-7528
웅진실업 (032) 549-2218~9
대구 대리점 동방상사 (053) 766-9991
광주 대리점 규림상사 (062) 676-2758
대전 대리점 경동 보일러 (042) 932-3680